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7년 8월

석사학위 논문

중국의 반한류에 관한 연구

-2016년 한한령의 영향과 중국 유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비 양

중국의 반한류에 관한 연구

-2016년 한한령의 영향과 중국 유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Anti-Hallyu(Anti-Korean Wave) in China:
Perceptions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on the China's Hallyu Prohibition Order in 2016**

2017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비 양

중국의 반한류에 관한 연구

-2016년 한한령의 영향과 중국 유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 희 은

이 논문을 언론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비 양

비양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최 양 호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선 희 인

위 원 조선대학교 부교수 이 희 은 인

2017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3
제1절 중국내 한류의 시작과 발전 과정.....	3
1.한류의 기원.....	3
2.한류의 발전과정과 내용.....	4
제2절 한류의 영향.....	8
1.경제적인 영향.....	8
2.정치적, 사회문화적인 영향.....	9
제3절 문화접변과 한류에 대한 시각의 변화.....	12
제4절 반한류의 전개.....	14
1. 2006년의 반한류와 2016년의 한한령.....	14
2. 2006년의 반한과 2016년 반한의 차이점.....	21
가. 반한의 원인과 맥락.....	21
나. 전개 과정.....	22
다. 언론 보도.....	22
라. 한한령의 결과.....	23
제5절 기타 “반(反)문화” 현상.....	24
1.일본의 “혐한류”.....	24
2.한대령(限台令).....	25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28
제1절 연구문제.....	28
제2절 연구방법.....	29

제4장 연구결과.....	33
제1절 2016년의 한한령이 중국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33
1.방송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	33
2.산업적 영향.....	36
3.사회적 영향.....	39
제2절 20대 제한 중국 유학생들의 한류에 대한 인식.....	40
1.제한 중국 유학생들의 한류에 대한 관심도.....	40
2.한류 상품의 우수성.....	43
3.한류에 대한 평가.....	46
4.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48
제3절 20대 제한 중국 유학생들의 반한류에 대한 인식.....	50
1.반한류에 대한 생각.....	50
2.중국의 방송업에 대한 제한 중국 유학생들의 생각.....	55
3.한한령의 결과에 대한 생각.....	58
 제5장 결론.....	 63
 참고문헌.....	 67

표 목 차

<표 1>	한류의 발전과정.....	5
<표 2>	인터뷰 질문 내용.....	30
<표 3>	조사방법(직접대면)	31
<표 4>	조사방법(전화통화).....	32
<표 5>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제작하는 중국 예능 프로그램.....	34
<표 6>	한류 중 선호하는 분야.....	4

그 림 목 차

<그림 1>	‘한류’의 주요 확산 지역.....	4
<그림 2>	‘한류’의 주요 분야.....	7
<그림 3>	‘한류’의 주요 파급효과.....	7
<그림 4>	제목 변경 전후 예능 프로그램의 로고.....	19
<그림 5>	중국의 웹사이트에서 “한한”의 시작.....	20
<그림 6>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변동 현황.....	37
<그림 7>	중국 기업의 한국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투자 사례.....	37
<그림 8>	한국 연예인을 모자이크 처리한 화면.....	39

ABSTRACT

A Study on Anti-Hallyu (Korean Wave) in China: Perceptions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on the China's Hallyu Prohibition Order in 2016

by Fei, Yang

Advisor: Prof. Lee, Hee-Eun, Ph.D.

Dept. of Journalism & Communication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t has been long since the world became a large “global village.” Economy of different countries is closely related and cultures have been actively shared among them. In these circumstances, Hallyu has been dispersed through various media and a lot of countries enjoy Korean dramas, movies and pop music together. Effects of Hallyu went beyond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Japan. It made effects on Southeast Asia, Europe, US and Africa. In this paper, effects of Hallyu on China, reasons of anti-Hallyu has made since 2006, effects of political issue in 2016 on Hallyu, and opinions of young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on the government policy will be discussed.

In China, Hallyu started in early 1990s. Before the time, Chinese government had performed a limited open-door policy to other countries. Cultural products imported from outside were Hong Kong films, most of which were comedies or action movies. Those who liked action or comedy films were young males and there were no other non-Chinese cultural products that could be enjoyed by family altogether. Hallyu starting in early 1990 satisfied demands of these people. For example, Korean dramas deal with various themes. As they include romances between men and women and friendship among friends, everybody can enjoy them. Therefore, Hallyu became very popular in China. Effects of Hallyu were not limited to cultural things. It started to affect economic and political issues

and both countries, China and Korea, became beneficiaries.

However, Chinese people came to look for something new and fresh as time went by and Chinese audience began losing interest in Hallyu. Chinese government tried to protect their own culture using it as an opportunity. The first anti-Hallyu was born in this background. In 2016, we met the biggest anti-Korean action, so to speak ‘Hanhanryung’ (Prohibition Order against Hallyu) relating with a political issue such as “THAAD”. Suddenly Korean dramas, shows and entertainers disappeared from Chinese TV.

Although ‘Hanhanryung’ started in October, 2016 as a governmental policy, not all Chinese agreed with it. In this paper, Chinese students in their 20s who were studying in Korea were interviewed to identify what they thought about ‘Hanhanryung’. They are familiar with both cultures and have direct contacts with Hallyu and Chinese culture. We tried to review their opinions on ‘Hanhanryung’ and identify the grounds of their opinions. In the interview, it was found that they were more or less against using a political issue to interfere in cultural things.

It is usual for a government to confront with other countries for the position and safety of the country. However, Chinese students express criticism on using culture as a conflict solving method. For it is essential to communicate and exchange cultures as they should live in a “Global Village” and current Chinese society is not a feudal society in the past. Through such exchanges, we can make economic and cultural collaboration. Once ‘Hanhanryung’ starts, many companies and broadcasting stations in China have to stop working with Korean companies. It will naturally bring cultural and economic loss. Chinese government does not have detailed alternatives for this loss and compensation plan. All financial losses are on companies and broadcasting stations. With these restrictions, will ‘Hanhanryung’ be still effective?

The most important thing to understand one another in globalization is to contact foreign cultures. However, Chinese government started to interfere in cultural exchanges. Inconvenience that they cannot watch Korean dramas on TV and an important method for people to contact foreign culture disappeared. Of course Chinese government can give pressure to Korean government for a short time but nobody can estimate when the political problem will be solved. If Chinese government persists in prohibition of Hallyu related things, it will bring damages on Chinese culture progress. Conclusively, Chinese students in

Korea thought that both countries, China and Korea, would suffer from losses at the end.

Keywords: Hallyu, Anti-Hallyu, ‘Hanhanryung’ (Hallyu Prohibition Order),
Chinese Students in Korea in their 20s, Cultural Interference.

제1장 서론

중국에서 한류는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인기를 끌어왔다. 그 기간 동안 한류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점차 다양해져서 한류에 대한 평가 또한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적으로는 한류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초창기에 주로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던 한류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부침을 겪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한류의 발전 단계에서 2016년은 의미 있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될 만하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중국 내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한한령’(限韓令)이 발표된 해이기 때문이다. ‘한한령’이란 단어 자체가 의미하듯 한한령의 목적은 한류의 움직임에 반대하며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한한령’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중국인들 대부분이 잘 알고 있을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퍼져나갔다.

한국 언론에서는 2016년의 ‘한한령’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지만, 사실 중국 내에서 한류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일어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의 경우와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2006년에도 중국 내에서 반한의 움직임이 크게 일었다. 다만 2006년의 반한 움직임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2016년의 ‘한한령’과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2006년의 경우 반한 흐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한류’의 움직임이 생성되면서 다시 한류의 높은 인기가 회복되었지만, 2016년의 ‘한한령’ 이후에도 그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 내에서 일어난 2016년 반한류의 영향과 재한 중국 유학생의 인식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 내 한류의 시작과 전개 과정에서 2006년과 2016년의 반한류 움직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리하고, 두 번의 반한류가 발생한 원인과 과정을 정리하고 분석한다. 두 번의 반한류 중에서도 특히 2016년 한한령 때문에 개인과 기업 및 중국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 내에서 한류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가깝게 자리하고 있다. 평일에 보는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과 영화의 상당수가 한국의 것임은 물론이고, 인기 배우나 연예인을 꿈꿀 때에도 한류 스타들이 빠지지 않는다. 중국 내 반한류의 움직임이 이러한 개인들의 삶에 영향을 준 것은 당연하지만, 2016년의 한한령이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개인 뿐 아니라 방송 산업 전반은 물론 한국 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중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한중 양국 간의 친밀한 문화교류에 적신호가 켜짐에 따라, 한국에 유학 중인 수많은 중국 유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은 반한류의 전개 과정과 그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국가나 정부가 문화교류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방식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한류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진행되어 왔지만, 이 논문은 한류가 한국과 중국 양국의 정치적인 관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한류에 대한 후속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중국 내에서 반한류의 의미, 그리고 재한 20대 중국 유학생들의 반한류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볼 이 논문은 전체적으로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은 이 연구의 목적과 배경 그리고 논문의 구성과 방법을 정리하고 있다.

제2장은 한류와 반한류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한류의 영향과 반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핀 후 한류에 대한 시각의 변화와 함께 일어난 반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한다. 또한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한한령 시작 후 중국과 한국의 상황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분석한다.

제3장은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을 서술한다.

제4장은 연구문제에 따른 문헌연구와 한한령 담론 연구 결과를 논의하고 20대 재한 유학생들과의 인터뷰 중심으로 한류와 반한류에 대한 의견 및 의미평가를 제시한다.

제5장은 이 논문의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 및 의의를 서술한다.

10쪽에서 재인용).

한류의 확산과정을 나비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의 음악, 드라마, 영화에 대한 선호에서 시작되어 그것이 화장품, 복장 등의 한국 경제상품의 판매까지 연결되며,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가 주목받게 되고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활동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손대현, 2005).

<그림 1> ‘한류’의 주요 확산 지역



출처: 고정민, 2009; 쓰원, 2014, “문화교류를 통해서 본 한중 관계발전연구”
15-16쪽에서 재인용.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한류의 주요 확산 지역 중에 아시아 지역이 65% 이상을 점유하고 유럽, 미주등 기타지역은 35%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2. 한류의 발전과정과 내용

중국에서 한류의 발전과정은 시기에 따라 내용도 달라진다. 중국사회도 계속 진보하고 있어서 외래문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강해져왔기 때문이다. 한류의 발전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대순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류의 발전과정

시기	내용
태동기(1980-1997 년)	<p>-1980 년 조용필 등 한국 가요의 중국 번역곡 유행</p> <p>-1988 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문화가 중국 진출</p> <p>-1993-1997 년 <사랑> 등 3 편의 드라마가 중국에 진출</p> <p>-1997 년 5 월 “서울음악실”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방송</p>
발전기(1998-2000 년)	<p>-총 10 여편의 드라마와 영화 중국, 대만 등 으로 진출</p> <p><온달왕자들>, <보고 또 보고> 등</p> <p>-1999 년 가수 클론의 대만 현지활동</p> <p>-2000 년 음악 전문채널인 'V'채널이 한국 음악프로를 소개</p>
확장기(2001-2015 년)	<p>-2001 년부터 수많은 한국인기가수들의 현지공연</p> <p>-동남아시아를 벗어나 전세계로 시장을 넓힘</p> <p>-한국의 대중문화뿐만 아닌 일반 상품에 이르기까지 그 효과가 미침</p> <p>-2005 년 이후에는 <인어아가씨>, <대장금> 등이 큰 인기를 얻음</p> <p>-2008 년 북경 올림픽 유치를 지원하는 취지를 내건 ‘한 중 슈퍼 콘서트’에 안재욱, 유승준, 베이비복스 등이 참가</p> <p>-2010 년 상하이엑스포에서 열린 ‘한국고전과 유행 음악회’에서 슈퍼주니어, f(x)등 한류 스타들 총출동</p> <p>-2012 년 음악, 드라마의 열풍이 이어지며, 중국에 있는 한국산업체의 수가 증가.</p> <p>-2013 년 “강남 스타일”의 전 세계적인 열풍.</p> <p>-2014 년 한국으로 유학을 떠난 중국 유학생수 6 만명 초과. 여행자수 600 만명</p>

	<p>초과</p> <p>-2015 한국 오락 프로그램이 중국에 열풍을 일으킴. 중국 방송국이 프로그램 판권을 구입하여 다시 제작하는 방식이 많아짐. 예를 들어, 중국판 <런닝맨>, 중국판 <무한도전> 등</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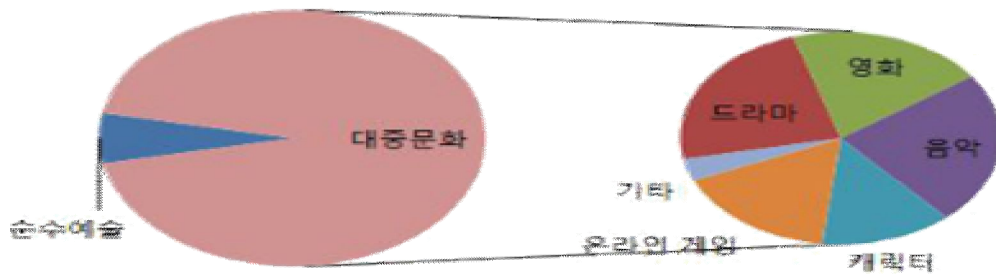
-출처: 화개경, “한류의 경제적인 효과에 관한 연구”, 2011, 22 쪽.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류는 1980년대 이후 드라마와 음악을 통해 처음 중국에서 인기를 모았고, 이후 2000년대 확장기를 거치면서 대중 매체의 증가는 물론 여행객과 유학생의 증가로 이어졌다. 1980년대 특정 프로그램의 인기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한류의 양상 역시 2000년대 이후에는 한중 공동 제작 등의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한류의 이런 발전과정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한류를 생각할 때 처음에 떠올리는 것이 한국 드라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한류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들이 섞인 하나의 현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음악, 게임, 전자제품 등을 모두 일컫는 개념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한류는 한국 드라마를 의미한다. 중국의 권위 있는 사이트 바이두(百度)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한류를 정의한다. 한류의 넓은 의미는 주로 한국의 패션, 음악 등이다. 좁은 의미는 한국의 드라마, 영화 등 한국문화가 다른 나라에 일으키는 한 가지의 영향력이다(유맹비劉孟飛, 2017). 중국에서 한류를 좁게 보자면 드라마 등 상품을 의미하지만 대체로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쓰원(2014)은 화개경(2011)의 연구내용과 비슷한 연구결과를 얻고 한류의 주요 분야와 파급효과를 표로 나타냈다(<그림 2>, <그림 3> 참조). 표를 통해서 볼 때 한류는 대중문화면에서 가장 많은 수단을 통해 전파되었다. 대표적인 영역은 바로 영화와 드라마다. 또한 전파의 내용에 따라 구매력, 관광여행, 유학, 한류스타 등 여러 가지의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한류’의 주요 분야



-출처: 고정민, 2009; 쓰원, 2014, “문화교류를 통해서 본 한중 관계발전연구”
15-16쪽에서 재인용.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순수예술은 한류의 주요 분야 중에 20%의 비중만 점유하고 있는 반면에 대중문화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중문화 중에서는 드라마, 영화, 음악, 캐릭터, 온라인 게임이 15%-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대중문화는 5% 정도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그림 3> ‘한류’의 주요 파급효과



-출처: 고정민, 2009; 쓰원, 2014, “문화교류를 통해서 본 한중 관계발전연구”
15-16쪽에서 재인용.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한류의 주요 파급효과는 파로 한류스타, 구매소비, 그리고 관광이다. 그림에서는 이 세 영역이 각 20% 정도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유학과 비즈니스는 각 15% 정도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고 기타 파급효과는 한류 중에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인들의 한류에 대한 인식은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에만 머물지 않는다. 한류문화가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 중국까지 들어간 후 한류에 대한 인식이 소비, 관광, 유학 등 여러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한류를 통해 영향을 주고받은 한국과 중국은 모두 한류의 수혜자가 되었다.

제2절 한류의 영향

중국에서 한류가 발전해오는 동안 미디어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한국 역시 중국 내에서의 한류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이해관계가 생긴 부분이 많다. 한류의 구체적인 영향력을 경제, 정치 및 사회생활, 문화의 영역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적인 영향

한류가 중국에서 성장함에 따라 한국의 상품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몇 편의 인기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 상품의 중국내 판매율이 높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브랜드들도 중국에서 유명해졌다. 한류는 이미 한국 문화 산업의 대명사가 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한국 정부가 한류를 통하여 중국과 아시아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석퇴, 2014).

한국무역협회의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류가 중국에 전파되고 20여 년 동안 중국의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한 한국 제품은 휴대전화(15.7%), 화장품(13.3%), 의류(12.7%), 패션용품(11.5%), 음료수와 과자(10.3%), 컴퓨터(8.3%), 가전제품(7.4%)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에 남성은 휴대전화, 컴퓨터를 많이 구매하고 여성은 화장품,

의류 등을 주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의 이유로는 제품의 품질 때문이라는 응답이 41.8%로 가장 높고 디자인(18.1%), 가격(16.9%), 브랜드(13.7%), 서비스(7.7%)의 순서였다. 연령별로 보자면 20 대의 젊은 층은 디자인을 중시하고, 10 대, 30 대, 60 대 이상 소비자는 가격을 중시하며, 40 대와 50 대는 브랜드와 서비스 때문에 한국 상품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석뢰, 2014).

-석뢰, “중국의 한류(韓流) 발전 추세에 관한 연구”, 2014, 9 쪽.

한류가 중국에 미친 경제적 영향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한류가 중국의 상품생산 및 판매에 도움을 준다(이병혁, 2004).

둘째, 중국의 해외여행 등 산업의 성장에 한류가 영향을 미쳤다.(이병혁, 2004).

또는 한국과 중국이 한류를 통해 이루어진 국민간, 국가 간의 교류 외에도 경제적으로 상호의존 관계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경제적인 상호의존 관계의 강화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최미진, 2002). 최근의 사례를 보면 한국배우 김수현은 <별에서 온 그대>에 출연한 후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얻었고 1년 동안 중국에서 35개 광고를 촬영했다. 이 회사들의 매출액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회사는 ‘항대생수’(恒大冰泉) ‘일리우유’(伊利牛奶)’ 등이다(新浪新聞, 2014. 8. 13).

또한 2016년 9월까지 한국은 중국까지 수출하는 상품을 일반적인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선박, 액정상품, 식유 또는 강철 제품 등 대형 상품을 중국까지 수출하였다.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 동시에 중국에게는 더 좋은 생산 환경과 생활환경을 제공했다. 그래서 한류는 경제적인 효과 이외에도 사람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2. 정치적, 사회문화적인 영향

한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정치적인 효과는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꿨다는 것이다. 사실 한류문화가 중국에 일어나기 전에 한국에 대한 인식은 ‘조그만 나라’, 남조선(南朝鮮) 등으로 거의 긍정적 이미지가 아니었다(장미선, 2012).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류를 통해 한국사람, 한국 상품, 한국어, 한국사회에 대한 호감이 많이 증

가했다.

한국의 드라마, 노래 등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알게 되었다. 한국의 드라마 속에 많은 적극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설교성이 강한 중국 드라마보다는 한국의 드라마가 훨씬 우수하고 예술성이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요구와 기대에 알맞은 국제문화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이병환, 2005).

이러한 점 외에도 한국 드라마의 영향 때문에 중국인들의 한국문화 의존도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영향력으로 한국 유학생과 여행자들의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퇴위賴威, 2006).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사회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고 예전과 비교하면 더 자유로운 문화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더구나 도시화의 발달로 인해 도시민들에게 오락적인 대중문화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바로 중국의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퇴위賴威, 2006)

한국의 대중문화는 높은 예술성으로 중국에서 열풍을 일으켰다. 예를 들어 중국의 대학생들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로 주로 한국 드라마의 우수한 예술성을 꼽고 있다. 내용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화면이 아름답고 배우들의 외모가 뛰어나다는 평가 등이 많다(김관웅, 2006).

한류는 한국 기업들의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한류를 따르는 중국 사람들로 인해 사회, 문화적 분야에서도 변화를 일으켰다. 한류는 중국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젊은 사람들은 한국어 배우기와 한국 배우의 차림을 따라하고 있다(담홍월, 2016).

한류의 문화적인 영향은 경제적인 영향, 또는 정치, 사회생활적인 영향과 비교하면 차이점이 존재한다. 한류문화의 주요 수용계층이 일반대중이라는 점이다. 경제적인 영향과 정치적인 영향은 정부와 기업에 더 큰 이익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류의 영향력을 논의하려면 일반대중에 미친 문화적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

또는 한국의 문화 상품이 중국 문화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한 원인 중에 하나로 중국과 한국 간 양국이 문화적으로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국의 문화 상품은 중국의 문화 상품과 비교하면 문화적 차이가 다른 국가들의 문화 상품보다 적어서 중국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퇴위賴威, 2006).

또한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의 대중문화와 비교해 볼 때 더 선진한 대중문화로서 중국에서 문화산업이 발전할 때에 기술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고 중국 대중문화업체는 한류를 통해서 따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주 많다(고단단高丹丹, 2004).

다른 한편으로 한류 자체는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의 문화교류를 더욱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한류의 파급이 한국과 중국의 교류도 더욱 빈번해지고 교류의 영역도 교육, 체육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다(박광해, 2004).

한류는 중국의 문화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쳤고 중한 양국은 지금까지 문화 교류를 빈번하게 진행해 왔다. 중한 양국의 교류방식은 정부 간의 교류와 문화단체간의 교류다. 양국은 여러 가지의 교류를 통해 우호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한류처럼 문화 간의 교류를 통해 양국의 정치, 경제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류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보면 문화적인 영향이 제일 많다. 한류는 한 가지의 문화현상으로서 양국 간의 교류, 합작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 그래서 중한 양국이 발전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교류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한류도 일종의 국제교류다. 오늘날의 국제건의 교류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빈번하게 진행하고 있다.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보자면 특히 오늘날 정부, 기업이 서로 간에 절대 독자적으로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고 상호간의 교류와 협조를 통해 우호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고 사람간, 정보간의 교류를 통해 각 부분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교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이정표, 2003).

장남(張楠, 2016)은 “국가 간에 문화교류를 시작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다”고 주장한다(장남張楠, 2016논문, 13쪽).

문화교류를 하기 시작하면 그 문화적인 교류가 정치방면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사례를 보면 1994년 3월 김영삼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 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정부 간 문화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2001년까지 양국 간에는 네 번의 문화공동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매년 교류계획이 세워지고 양국 간 문화교류는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또는 문화협력협정을 통해 가장 중요한 성과는 바로 중국 북경과 한국 서울에 양국의 문화원을 설립하는 일이었다. 양국은 문화협력협정의 주요 내용에 따라 2005년 서울에 주한 중국문화원 그리고 2007년에 북경에 주중 한국문화원을 설립하였다. 양국에 문화원을 설립한 후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양국 간 문화교류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장남張楠, ‘한중문화교류-수교 이후의 현황과 전망’, 2016, 13쪽.

이제 문화교류는 자국 문화를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과 국가이익과

연결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간다. 그래서 양국 간 문화교류도 시대의 변화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발전되어 갈 것이다. 오늘날의 경우를 보면 양국 간에는 단순한 문화 교류 외에도 저작권 분야와 문화 산업 분야의 합작, 투자도 더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장남張楠, 2016).

제3절 문화접변과 한류에 대한 시각의 변화

하나의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 후 그 지역의 문화와 서로 결합하는 동시에 변화하고 저항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현상은 문화접변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문화접변이란 바로 이처럼 “문화가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문화에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와 접촉, 수용, 저항 등을 통해 변화한다”(치아오 춘옌喬春嫣, 2011논문, 24-25쪽).

“한 지역의 문화요소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 후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 문화요소는 그 지역에 이미 존재한 문화요소들과 서로 융합하고 기존의 문화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만일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 문화요소가 그 지역의 기존 문화요소들과 충돌하고 대립하면, 이 과정에서 기존의 문화요소들과 혼합되면서 또 다른 문화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을 때에라도 문화전파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Appadurai, 1990: 치아오 춘옌喬春嫣, 2011, 24 쪽에서 재인용).

문화가 전파될 때 기존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만나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또 다른 문화를 형성할 수도 있다. 말리노프스키(Malinovski, 1994)는 “두 가지의 문화가 서로 만나게 될 때 비록 사회의 경제 발달정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또 한 쪽의 문화가 다른 쪽의 문화보다 좀 열세에 놓이더라도 문화는 일방적 전파가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린튼(Linton, 1936)의 문화 전파 이론에 따르면 한 사회의 문화는 다른 한 사회의 문화와 빈번하게 접촉할 때 새로운 문화요소가 개입하면서 변화를 유발한다.”(Malinovski, 1994 & Linton, 1936: 치아오 춘옌喬春嫣, 2011, 22-23 쪽에서 재인용).

한류가 중국에서 발전되는 양상을 문화접변의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처음에 한류가 가지는 문화적 특징들이 중국에 전파되고 그 후에 중국의 문화와 혼합하고 새로운 ‘한류문화’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문화접변의 과정 속에는 다른 문화에 대한 저항의 정서도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한류가 중국에 전파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자 자체적인 ‘반한류’ 혹은 ‘항(抗)한류’의 정서도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류는 중국의 여러 가지의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생겨나게 되었다.

재중한국인 교수 한홍석은 한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경제적 효과도 별로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한국 문화콘텐츠진흥원이 2003년 10월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10대와 20대들은 한류를 선호하지만 30대에게 한류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다고 한다. 중국 베이징 사범대 교수 왕이취안(王一川)도 한홍석과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한류는 10대 청소년 특히 문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며, 기성세대에게는 반감을 주는 문화라고 비판한다

-신윤한, 이한우, <동아시아의 한류>, 2006, 22쪽.

이 연구들은 10여 년 전의 분석이기는 하지만 한류가 10대, 20대 위주로 수용되는 현상은 지금도 크게 변화가 없다.

“문화비평가 이동연도 한류란 ‘국가가 특정한 자본주의적 기업을 직접 그 관리하에 둠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제도 속에서 나타나는 산업적 국가자본주의의 산물’ 또는 ‘주류 문화와 다르며, 한류는 내용으로 볼 때 폭력, 유치, 선정, 저속을 포함한 천박한 B급 문화자본의 파생물’이라고 혹평한다”(신윤한, 이한우, 2006, 22쪽). 사회주의가 강한 중국에 일방적으로 판매하는 자본주의 상품의 결과가 좋지않은 않음을 비판한다.

그런데 반한류가 생겨나게 된 배경에는 이렇게 한류 자체의 문제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중국의 자문화 중심주의도 관련되어 있다. 자기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우월하다고 믿고 또한 그것을 타문화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을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다(문선애, 2011). 그러나 이러한 익숙함이 자문화에 대한 우월감이 되는 순간, 문화의 교류는 간접관계에 놓인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아주 오래 전부터 외래문화보다 자기나라의 문화를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였다. 개혁개방 후에 외래문화를 점점 많이 접촉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문화를 아주 중시한다. 한류 문화가 중국에 일어난 후에 중국의 문화는 큰 충

격을 받았다. 자기나라 문화를 보호하고 한류문화 중에 자기나라문화와 비교하여 좋지 않은 요소가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 때문에 중국 국내에 바로 반한류가 생겨났다. 또한 한국의 연예인들이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고 중국의 연예시장을 점유하게 되면서 중국의 연예인들은 위기의식을 느꼈다.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표출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을 한국의 언론 등에 발표함으로써 중국 사람들의 마음에 반한류 의식을 촉진하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두 문화가 동등하게 교류하지 못해서 생기는 결과를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한류가 이러한 불균형에 놓여있어서 한중문화의 교류가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이는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단순교류보다도 상호호혜적인 교류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제4절 반한류의 전개

지금까지 중국에서 반한류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 것은 2006년의 ‘반한’과 2016년의 ‘한한령’을 꼽을 수 있다. 두 번의 사건은 모두 반한류의 특성을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발생 원인이나 전개과정 또한 그 효과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 이 둘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06년의 반한류와 2016년의 한한령

아시아권에서 한 동안 큰 인기를 끌었던 한류는 2005년 후반부터 중국에서 점차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2006년에 중국의 반한류 행위를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내 반한류 현상의 원인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문화상품의 수입량은 많은 반면 중국의 문화상품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양은 아주 부족하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문화가 흐르면서 저항감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경제적인 손실로 나타났고 특히 중국 방송계에서는 자신의 문화를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불만의 정서가 중국내 방송 및 연예계 관계자들 사이에 ‘반한류’감정을 일으킨 것이다(김성자, 2009).

반한류가 발생한 다른 원인은 바로 중국이 반한류를 통해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려 하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자국의 문화산업을 지키기 위한 많은 지원과 외국문화

수입에 대한 법들을 정비했다. 또는 한국 드라마 등의 방송을 제한하고 방송의 총량을 줄이려는 법도 제정했다(한은경, 장우성, 이지훈, 2007).

또한 급속도로 상승한 한국 방송 콘텐츠의 가격이 중국의 반한 정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6년에 한국 방송 콘텐츠의 수출가격은 몇 년 전과 비교하면 몇 배에 이를 만큼 상승하였다. 가격의 상승이 한류 열풍을 막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박재복, 2005).

한류가 콘텐츠의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것도 반한류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드라마, 영화 등 문화콘텐츠가 시장에 적합한 내용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류 열풍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된다(김성자, 2009).

또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도 반한류의 생성과 관련이 있다. 중국공산당(共産黨)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는 한국, 일본 등에서 유입되는 문화를 불량한 문화라고 규정하는 기사를 보도했다(주영걸, 2005). 중국의 대중문화는 중국정부의 엄격한 규제 밑에 있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2003년 중국에서 방영중이던 인기가 많았던 대만 드라마 <유성화원>(流星花園)의 방송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김성자, 2009).

그 밖에 중국 연예계가 한국 드라마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국내의 반한류 추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중국 배우 장국립(張國立)은 <대장금>중에 한국이 침술을 발명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냈다. 침술이 중국이 발명한 의술이고 언론은 이러한 내용의 실수를 못 보고 드라마를 찬양만 하는 것에 대한 비난하였다. 이 사건은 중국 반한류의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다. 그런데 처음에 언론은 이 사건을 연예계의 단순한 사건으로 보도하였지만 광범위하게 전파한 후에 이슈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주목 받는 사건이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중국내 반한류의 기류가 일어나고 중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문화를 보호하려는 의식은 더욱 커졌다(이만李曼, 2009).

요약하면 2006년의 반한류 사건의 원인은 주로 한류문화 자체에 대한 불만과 중국 정부의 자기 문화를 보호 목적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반한류의 원인과 출처가 분명했고, 반한류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2016년의 한한령은 2006년의 반한류보다 더 복잡하고 이미 많은 영역에서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016년 한한령의 기원을 보면 2016년 7월 8일, 한국은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발표하고 중국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 국내에서 한한령(限韓令)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한령’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 7월 30일 밤 10시에 중국의 인터넷 신문 사이트 ‘왕이(网易)’는 한한령에 관한 소식을 처음 보도하였다. “‘오빠 안녕!’ 광전총국은 한국 연예인들을 금지하려고?”(歐巴, 再見! 广电总局要限制韓國藝人?)라는 제목으로 광전총국이 한국 스타를 제한할 것이라는 소식을 중국 국내에 전하였다. 다음날인 7월 31일 오후 2시에 인터넷 신문 사이트 ‘장강왕(長江网)’은 그 동안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올린 의견과 최근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활동 진행 상황을 정리하여 보도하였다. 이 보도에서 기자는 “국가보다 더 중요한 스타는 없다”고 말하면서 “송중기들은(송중기와 같은 스타) 더 이상 중국에서 돈을 벌 수 없다”(國家面前無偶像, “宋仲基們”無法在中國繼續撈金)고 명시하였다. 그 후에 여러 인터넷 신문 사이트들이 각각 관련보도를 다뤘다.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신문 사이트인 ‘신랑신문’(新浪新聞)은 “한한령 때문에 한국 연예인 이준기는 자신이 중국에서 촬영한 영화 <거짓말 시시리> (謊言西西里)의 개봉행사에 참가할 수 없다”(因限韓令, 韓國藝人李准基無法出席“謊言西西里”開幕式)라고 보도 했으며, 텐센트(騰訊)신문도 “한한령과 사드의 관계”(限韓令與薩德的關係)라는 기사를 보도하였다(2016년 8월 4일). 5일 동안 중국의 인터넷에는 한한령에 관한 소식이 중국을 뒤덮을 정도로 많이 나왔다.

총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신문 중에 ‘한한령’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제목의 보도들은 주로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면서 단순히 한한령에 관한 내용만 소개하였다. 또는 한국 언론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한국 문화산업 종사자의 3분의 1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韓娛圈或將要有三分之一的人失業)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으나 찾아보니 한국 언론의 말을 인용한 것이었다(搜狐新聞, 2016. 8. 13).

이렇게 중국 내 신문 중에 한국에서의 뉴스를 인용한 경우가 많은 이유는 중국은 언론과 문화 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한령의 확실한 근거가 되는 중국 광전총국의 공식지침이나 관련문서가 아직도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고 중국 매체들도 공히 “문건은 없다”라는 입장을 보도하고 있었다(류종훈, PD저널, 2016. 8. 13).

중국의 국영방송국 ‘CCTV (中國中央電視台, 중국중앙방송국)’와 국영신문사 <인민일>는 한한령 관련 보도가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CCTV와 인민일보의 특성 자체와 관련이 있다. 두 언론사의 취지와 임무는 같다.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위주의 내용을 선전하고 공산당의 노선과 방침, 정책을 선전하며 전국 각 민족의 인민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활동을 보도한다. 또한 중국 사회주의의 4개 현대화 건설의 경험과 성취를 소개하고 국제상의 중대한 사건과 각 국가 인민간의 우호 활동 등을 보도하고 있다”(中國社科院, 1988; 한강우, 2001, 15쪽에서 재인용). 한한령은

양국 간의 정치문제 때문에 생긴 좋지 않은 사건이다. CCTV와 <인민일보>보도에는 한국의 문화를 다루는 보도는 거의 없다. 사실은 중국의 신문사와 방송국은 기사를 보도할 때 항상 선택적인 보도를 한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인구가 많고 국가도 발전 중에 있어서 언론을 잘 통제하지 않으면 국가내부의 불안을 일으키는 것이 쉽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소극적인 효과도 생길 것이다. 국가는 항상 사건의 사실을 감추게 되고, 사람들은 사건의 진실을 알기 어렵게 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중국과 전혀 다르다. 한국의 언론환경은 상대적으로 더 자유롭고 방송국도 많은 국가의 문제에 대한 보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한한령에 관한 보도 한국이 중국보다 더 빠른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바로 국가의 간섭이 적고 언론사는 자유롭게 취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를 보면 한한령에 대한 한국 언론보도의 내용은 중국과 차이가 많다. 주로 한한령을 부정하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내용이 많이 있다. 연예인들의 중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일방 취소된 사례들이 가장 많이 보도된다. 엑소(EXO)의 상해 콘서트가 취소되었다는 소식, 김우빈과 수지의 팬 사인회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연기됐다는 소식 등 한국의 연예인들의 손실에 관한 보도가 많다(류종훈, PD저널, 2016. 8. 13).

이런 과정에서 베이두 신문은 한한령에 관한 투표를 시작하였다. 찬성하는 사람이 92%를 초과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8%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차이가 아주 크다. 그 중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먼저 사드 때문에 한국에 대한 불만심리가 있고 한국의 연예인들이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고 중국의 연예시장을 점유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 스타를 무조건 지지하는 중국팬들이 너무 많고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위해 의미가 없는 일을 하는 많은 중국 사람들을 경시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팬들을 “腦殘粉(광팬)”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열성팬이다. 한한령이 이런 사람의 수를 감소시키고 결론적으로 “광팬”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한한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

같은 해 8월5일에 한한령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서 발표되었다. 그 후에 한한령에 관한 관련보도도 많이 나왔다. 그 전에 한국 연예인들은 중국에서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것만 신문 기사 중에 많이 나오고 다른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다.

한한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인기가수 와 빅뱅 등의 중국 내 공연 금지, 한류 스타가 중국에서 만 명 이상의 시청자에게 공연하는 것 금지, 한국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것 금지, 한한령 반포 이전에 중한 양국이 공통으로 추진했던 프로젝트

합작 금지, 한국과 오락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등을 공동 제작하는 것 금지 등이 포함된다. 중국의 방송국도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드라마를 방송할 수 없다. 한한령이 공식 실시된 것은 2016년 9월 1일이었다(百度百科, 2017. 4. 5). 광전총국이 한한령을 반포하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구체적인 문서가 남아 있는 것은 없고 구두로 각 방송국에게 지시를 전달하였다.

한한령의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이종석, 유인나 등 한국 연예인들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 53편의 촬영과 방송이 중단되었고 한류 스타들이 중국TV에서도 나올 수 없었다. 문화산업 방면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이 여러 날 계속 폭락하였다. 중국 회사와 합작하는 프로젝트를 그만두고 중국의 투자도 계속 받을 수 없었다(网易新聞, 2016. 8. 6).

한한령이 시작된 후 중국의 TV에서 한국에 관한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은 전혀 방영되지 않았고 한국 연예인에 관한 신문보도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한국 연예인 황치열은 호남TV의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나왔다(國際在線, 2016. 9. 20). 호남TV가 이렇게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호남TV의 시청자들은 주로 10대, 20대의 젊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바로 한류문화를 선호하는 핵심적인 시청자층이다. 한국 연예인을 많이 초청하면 방송국의 지명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둘째, 호남TV는 유선TV 외에도 인터넷 TV로도 시청 가능하다. 한한령이 처음 시작될 때 주요 방송국을 대상으로 했을 뿐 인터넷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요구가 없었다. 그래서 중국의 인터넷을 통해서 아직도 한국의 많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2016년 9월에 방송하는 한국 드라마 <보보경심-려>를 중국의 한 웹 사이트 통해 바로 볼 수 있다. 이런 인터넷에서는 한한령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搜狐新聞, 2016. 9. 15).

한한령으로 인해 수많은 한국의 연예인들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이미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한국 연예인 황치열도 중국판 <아빠, 어디가?>에서 결국 퇴장했다. 얼마 후에 “황치열이 한한령 때문에 중국에서 활동할 수 없다”라는 신문기사가 나왔다. 또한 중국 문화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섭외공연신청(涉外演出申請)이라는 공시란 중에 “한국”을 검색하면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현황을 알 수 있다. 섭외공연신청의 수가 9월에 3개, 8월에 4개, 7월에 2개, 9월 이후에는 하나도 없다(网易新聞, 2016. 11. 17). 또한 2016년 11월 19일 이후 광전총국의 요구에 따라 한국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광고도 중국의 TV에서 모두 방송 금지되었다. 많은 중국의 회사들은 악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회사의 브랜드 모델을 다시 발탁하였다(网易新聞, 2016. 11. 19). 대표적인 사례로 송중기를 모델로 채용했던 프르야(珀萊雅), 김수현의 한후(韓后), 송혜교의 쓰위안(滋源), 안재현의 활천(活泉)등 중국 화장품

업체들이 당국의 불이익 조치를 피하기 위해 한국 모델들을 중국인으로 교체하였다(중앙일보, 2016. 11. 21).

2016년 12월 말까지 중국의 TV프로그램 중에 한국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계속 나오지 않지만 12월 6일에 상하이 문화방송영사관리국(上海文化广播影视管理局)은 한국 가수 그룹인 악동 뮤지션이 상하이에서 콘서트를 진행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이 사례는 2016년 10월 이후에 한국 연예인이 중국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것을 허가한 최초의 사례이다. 한한령 실시에 대한 불만이 너무 커지자 중국 정부가 잠시 정책의 변화를 꾀한 것이다. 만일 사드를 둘러싼 문제가 심각해지면 오히려 더 엄격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鳳凰資訊, 2016. 12. 7).

그런데 2017년에 들어서면서도 한한령은 해제되지 않았고, 광전총국은 TV에서 한국과 관련이 있는 드라마나 중한 공통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면 안 된다는 구두 지시를 내렸다. 많은 방송국들은 한한령을 어기지 않기 위해 프로그램의 제목을 모두 변경하였다(<그림 4> 참조). 프로그램의 원래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방송국과 더 합작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제목과 형식을 도입하였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중국판 런닝맨- 달려라, 형제들>과 중국판 <나는 가수다> 등의 프로그램이다(觀察者, 2017.2.15.)

<그림 4> 제목 변경 전후 예능 프로그램의 로고





한한령 초기에는 TV에서 한국에 관한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볼 수 없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볼 수 있었다. 그런데 2017년 2월 27일의 보도에 따르면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중국 웹사이트에는 새로운 한국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지 않고 2016년에 나온 프로그램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다(<그림 5>참조, 2017년 2월 28일 기준). ‘한한’의 상황이 더 심해졌다고 할 수 있다(參考消息, 2017. 2. 27).

<그림 5> 중국의 웹사이트에서 “한한”의 시작

综艺

新上线 • 日韩

朴智彬不畏水勇敢浮潜

金裕贞探访环球影城

12-31期

12-31期

团结才能火

四人游览张家界玻璃桥

不朽的名曲第2季

MAMAMOO嗨翻全场

12-30期

12-29期

歌曲之争 胜负

张度妍挑战SES名曲

我要开动了

文熙俊 Tony An合体

12-28期

12-28期

说话之路

HAHA称无挑跑男都重要

TRICK&TRUE

曹璐爆笑脖子转呼啦圈

12-28期

12-28期

相关 最新 最热 高级筛选

Running Man

年份: 2017

主持: 刘在石;HAHA;李光洙;金钟国;池石镇;Gary;宋智孝

播放源

立即播放

20170219 御姐挑衅懵智笑抽大神

20170212 在石光洙爆笑互扇耳光

20170205 大神绝命蹦极求救HAHA

查看全部

2017년 5월 현재 아직 한한령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전에 일어났던 “반문화”현상을 통해 한한령의 방향을 예측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2006년과 2016년의 반한을 비교하고, 일본의 “혐한류”와 중국대륙에서 2011년에 일어났던 “한대령”의 과정을 살펴보겠다.

2. 2006년의 반한과 2016년 반한의 차이점

중국 내에서는 2006년과 2016년 두 번에 걸쳐 반한의 움직임이 있었다. 10년의 차이를 두고 일어난 두 번의 반한은 그 기원, 과정, 영향, 결과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공식적으로 드러난 자료가 많지 않다는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비교할 때 드러나는 2006년과 2016년 반한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가. 반한의 원인과 맥락

먼저 반한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와 맥락에서 두 번의 반한은 차이를 보인다. 2006년의 반한은 중국 시청자들이 가진 한류에 대한 불만의 정서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이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자국 문화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반 시청자들이 가진 불만의 정서를 반한으로 이끌었다. 이에 비해 2016년의 반한은 사드배치 이후 중국이 자국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경고를 전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채택한 정책이다. 2016년 반한의 목적은 문화의 간섭을 통해 중국 내에 영향을 미쳤던 한류를 제한하고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다각적인 압력을 주려는 것이다. 즉 양국 간의 정치 갈등에서 유래한 반한이라 할 수 있다.

2006년의 반한의 원인과 관련한 중국 내의 연구 중에서 위지강(魏志江, 2008)의 연구와 윤홍(尹鴻, 2008)의 연구를 언급할만하다. 위지강(2008)은 ‘반한류’의 발생 원인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선 문화상품으로서의 한류가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문화시장으로 급속히 확산되던 상황에서 중화민족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강한 반한류 정서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한류에 공감하던 시선이 한류를 논쟁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한 것이다. 또한 한류로 인해 중국 대중문화 시장 전반이 타격을 입어 중국의 영상작품들이 많은 손해를 보았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반한류의 주장은 힘을 얻었다. 동시에 한국 드라마의 제작과 줄거리가 창의성이 너무 없어 영향력과 매력이 떨어진 것도 2006년 반한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魏志江, 2008; 유선선, 2010, 51쪽에서 재인용).

그 밖에 한류가 쇠퇴하는 현상의 원인을 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중국 영상산업계 종사자와 일반 대중들의 한국 드라마에 대한 불만이다. 둘째, 중국인들이 한류에 너무 익숙해진 결과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신선감이 필연적으로 떨어졌다. 셋째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여러 분야를 둘러싼 경쟁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尹鴻, 2008; 유선선, 2010, 50쪽에서 재인용).

나. 전개 과정

구체적인 반한의 분야나 내용에 있어서도 2006년과 2016년의 경우는 차이를 보였다. 2006년 반한은 한류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 방송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당시 중국에서 영향을 받은 한국 드라마는 많지 않았으며 한국 드라마를 계속 시청하는데 어려움도 적었다. 한국의 연예인들도 몇몇 유명 스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의 경우에는 한한령이 시작되자마자 TV에서 한국에 관한 프로그램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심지어 한국 스타에 관한 신문 보도도 모두 없어졌다. 한국 스타가 중국에서 ‘사라졌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다. 2006년 반한이 TV나 신문 등에 보도되지 않은 채 하나의 문화적 현상 정도로만 존재했던 반면, 2016년의 반한은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발달로 인해 언론에 보도되며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일반 대중들 또한 공식적인 정부 발표 없이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한한령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다. 언론 보도

두 번의 반한 모두 언론은 한류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를 전달하는데 집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보도 방식이나 보도되는 매체의 종류, 그리고 보도의 확산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먼저 2006년 반한에 대한 당시 중국 언론은 한류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 경향을 강하게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X-Man> 중국

사람이 악하게 되고 있다 ” 등 한류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가 많다(강내영, 2008).

그런데 2016년에는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발달로 인해 사건에 대한 보도가 훨씬 더 빠르게 전달되는 바탕이 마련되었다. 한한령이 시작되자 중국내 인터넷을 통해 한한령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논쟁을 벌일 수 있었다. 반면 논조에 있어서는 2006년의 경우보다 조금 더 침착한 분위기를 보였다. 인터넷 신문에서도 한한령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소개하면서도 중립적인 보도의 형식을 갖춘 경우가 많았다. 한한령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현황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언론사의 논조나 의견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국이나 한류에 대해 드러내어 비판하는 보도도 거의 없었다.

2016년의 한한령 관련 기사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pop-Starz의 보도는 “한한령 때문에 한국의 오락산업은 얼마나 손실을 볼 것인가?”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다. 또한 인터넷신문 7Y7.com의 보도는 “이종석이 출연하는 중국 드라마 <翡翠戀人>(Jade lovers)의 방송시간이 연기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왕이(网易)신문은 “한한령 때문에 한국오락산업의 주가가 떨어진다”거나 “한한령 통해 중국의 오락 프로그램이 과연 다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와 같은 중립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2006년과 비교할 때 2016년에는 한류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라. 한한령의 결과

2006년의 반한은 1년 정도 진행되었다. 이후 소위 ‘신한류’가 다시 중국에서 일어날 때 짚 되어서는 일부 학계와 언론에서만 반한의 정서가 남아있었을 뿐, 일반 국민들이나 정부에서는 더 이상 반한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너무 오랫동안 외래문화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반한 기간 동안에 한국 연예인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에는 참여할 수 없었지만 이미 제작된 드라마 등에서는 계속 등장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특별히 경제적 손실이나 문화적 계획의 차질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 신규 프로그램은 물론 기존에 방송되고 있던 대부분의 방송 프로그램들이 중단되었고, 유명 연예인들도 중국에서의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양국 간의 투자도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합작 관계에 있던

양국의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는 2006년의 반한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던 일이었다.

시간적으로 볼 때 두 번의 반한은 10년의 간격을 두고 있다. 그동안 중한 양국은 자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 문화적인 측면이나 사람들의 생각이 10년 전과 다르다. 같은 반한이지만 2006년의 반한은 한류 자체의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 결과 2006년의 반한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에 다시 한류가 불기 시작하면서 끝났다. 그런데 2016년의 반한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생겼고 그 결과도 양국 정부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동안 중국의 많은 방송국이 한국의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한한령이 시작된 후 방송국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므로 2016년의 한한령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2006년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제 5 절 기타 “반(反)문화”현상

1. 일본의 “혐한류”

2005년에 일본의 혐한류는 만화 <혐한류>가 출간되면서 함께 등장한 일본 내의 반한 정서를 의미한다. ‘혐한류’현상이 나타난 배경은 일본사회 깊숙이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원인을 찾고 사회의 변혁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경우 가장 쉬운 방법은 ‘적’을 찾고 거기에 불안의 원인을 투영하고, 그것을 배제하거나 비난하고 생각할 가치도 없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해소감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일시적 해방감을 갖게 해준다(다나카 히로시, 이타가키 류타, 2007).

만화 <혐한류>의 내용을 살펴보자. 이 만화는 한국사회를 문제가 많은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또한 한국과 북한의 대립 등 한국 특유의 문제도 만화 중에 나타났다. 만화를 통해서 일본에 살고 있고 일본인이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자신의 민족적 주체를 보전하기 전에 한국을 거울로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다나카 히로시, 이타가키 류타, 2007).

2011년에 일본에서 또 한 번의 반한류 움직임이 있었다. 그것이 시작된 이유는 2011년부

터 극우단체들을 중심으로 반한류의 기류가 형성된 탓이다. 또한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발언 요구가 일본인들의 심기를 건드렸고 일본내에서 반한류의 정서가 생겨났다. 그 결과 반한류 시위가 시작되었다. 또한 동방신기, 보아 등 인기가 많았던 한국 스타들이 방송에서 줄줄이 하차했다(MK뉴스, 사면초가 ‘한류’, 2016. 8. 8).

일본의 혐한류는 중국과 비교하면 차이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다. 2011년의 경우 일본인들의 반한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 많이 방송되던 시점에서 일본의 한 배우가 반한류의 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그가 속한 엔터테인먼트사가 이 배우를 제적했다. 그것은 또 다른 일본인들의 마음에 반한의 정서를 심었고 자신의 나라의 배우를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문제 제기와 일왕 사죄요구가 일본인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혐한류 안에는 이처럼 정치적인 이유와 자신의 문화를 보호하려는 자문화주의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 원인들은 중국의 2006년의 반한과 2016년의 반한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런데 양국의 반한에 차이점도 있다. 먼저 정치적인 상황이다. 일본에서 언론은 더 자유롭고 중국의 언론은 정부가 더 많이 간섭한다. 일본은 민주주의가 강한 나라이기에 결국은 반한류의 행위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그것을 철회하였다. 반면에 중국은 일본보다 나라의 통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여전히 정부의 통제 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2. 한대령(限台令)

중국이 한 대령을 반포했던 주요 원인은 중국대륙과 대만 양안(兩岸)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중국정부는 1949년부터 지금까지 대만과 양안의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대만은 자기의 독립을 주장하고 중국대륙정부는 대만이 중국의 한 부분이기에 절대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생겨났다.

중국대륙과 대만은 오래전부터 계속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에서 누가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대만은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나라로 생각하고 중국대륙으로 갈 때 외국으로 간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대만이 중국의 한 성(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대만정부는 자기의 정부를 합법적인 정부로 보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독립적 지위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는 진수편(陳水扁)은 2005년5월에 민진당(民進黨) 정부의 주석이 취임한 후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둘러싼 대립적인 상태를 이루었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일국양제’ (一國兩制) 방식을 통해 대만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대만은 국제사회의 실질적 주권국가를 이루기 위해 계속 활동하고 있다. (문홍호, 2007).

정치적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중국 내에서는 반한과 마찬가지로 반대(反台)의 행위도 있었다. 2011년에 중국대륙정부와 대만정부는 대독(台獨, 대만독립)의 문제 때문에 대만 연예인들이 중국대륙에서 연예 활동하는 것을 잠시 금지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만 사회자 오디(歐弟)가 중국예능 프로그램 <천천향상>(天天向上)에 출연했지만 그의 모습을 모두 모자이크 처리했던 사건을 들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드라마 중에 대만 연예인이 출연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되었다.

2011년 중국의 한대령이 발생한 이유로는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대만의 독립의지가 강해지자 이를 압박하려는 중국 정부가 한대령을 수단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중국의 연구자들이 볼 때 대만의 많은 예능 프로그램이 거의 남녀간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사회도덕을 해친다고 간주하였기 때문에 중국대륙정부에서 대만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2011년 중국대륙의 한대령이 선포되었지만 중국 국민들은 정작 이것과 관련된 문서를 보지 못하였고 뉴스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방송국은 정부로부터 구두로 명령을 전달 받고 한대령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3개월 정도 경과 후 대륙과 대만의 관계가 완화되었고 대만 연예인들은 다시 중국대륙에서 연예활동을 시작했다. 한대령도 그렇게 흐지부지 그치게 되었다.

한대령 기간에 인터넷에는 네티즌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네티즌들의 주된 주장을 보면 “지금 세계발전추세는 개방과 수용인데, 낙후적인 생각 때문에 진보를 바라지 않고 현상에 안주하고 지나치게 잘난 체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다 이성적인 행위가 아니다”고 하였다(新浪网, 2016. 8. 6).

한대령과 한한령을 비교하면 두 개의 사건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생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대령은 3개월 경과된 후 모두 해결되었지만 한한령은 8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 중국대륙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대만과 관련이 있는 문제는 다 국가내부의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간단한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한한령은 국가 간의 문제이므로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언제든지 국가의 이익은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사드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한한령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1절 연구문제

본 논문은 중국에서 일어난 2016년 한한령의 의미를 살피려는 논문이다. 먼저 선행 연구를 통해 한류가 처음으로 중국에서 발전하는 과정을 정리하였고 2015년까지의 발전과정을 설명하였다. 그 다음으로 한류의 발전과정에 따라 중국에 미치는 경제, 정치 및 사회생활, 문화적인 영향을 정리하였다. 또한 문화접변이론으로 반한류 정서가 중국에서 나타난 이유를 설명했으며, 중국 반한류의 세부사항을 정리하고 일본의 혐한류와 2011년 중국의 한대령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2016년 한한령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중국에서 벌어진 반한의 원인과 과정, 영향 등을 연구하고 인터뷰를 통해 반한에 대한 재한 중국 20대 유학생들의 생각과 한류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1: 2016년의 한한령이 중한 양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2016년에 발효된 한한령은 중한 양국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다. 2016년 9월 이전까지는 한류가 중국에서 발전하는 현황을 보였고, 음악, 드라마, 영상물 등의 교류는 물론 양국 방송국간의 합작, 기업 간의 투자가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한령이 시작되자 중국에서도 한류의 흐름은 급격히 냉각되었다. 첫 번째 연구문제로는 한한령의 시작 후 중국내 한국 관련 회사와 방송국들의 문화교류의 현황 등에 관해 고찰하고 구체적인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한한령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설명한다.

인터뷰 대상자는 한국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20대 중국유학생 15명과 광주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중국유학생 4명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뷰의 방식은 한류와 반한류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20대 재한 유학생들은 거의 다 자국에 있는 동안 한류를 접촉한 경험이 있었다. 인터뷰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필요한 경우 이야기 순서가 바뀌거나 흐름에 따라 추가질문을 하기도 했다. 인터뷰는 중국어로 진행되었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했다. 중국어로 기록된 인터뷰 내용은 연구자가 직접 한국어로 번역했다.

<표 2> 인터뷰 질문 내용

1. 한류문화를 언제부터 접촉하기 시작했는가?
2. 한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류는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것인가?
3. 한류를 접촉한 후 자기에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중에 제일 큰 부분은 무엇인가?
4. 한류문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부분 무엇인가? 그 이유는?
5. 평일에 한류문화를 접촉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 빈도는 어떤가?
6. 주변의 가족, 친구 중에 한류를 선호하는 사람 많은가? 나이, 직업, 성별은 어떤가? 그들은 한류 중 어떤 부분은 제일 좋아하는가?
7. 당신의 생각에는 한류가 중국에 넓게 전파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8. 한국 유학 동기는 무엇인가?
9. 한국 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0. 2006년의 반한류에 대한 기억이 나는가? 기억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11. 2016년의 한한령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 한한령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이유는?
12. 한한령이 시작된 후 자신에게 제일 큰 영향은 무엇인가?
13. 한한령이 시작된 후 주변의 환경과 사람 다 어떤 변화가 있는가?
14. 주변에 한국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그들이 받은 영향은 무엇인가? 그들의 생각은?
15. 중국의 방송국 중에 선호하는 방송국이 있는가? 혹시 한한령 때문에 방송의 내용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16. 중국의 방송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17. 일본의 혐한류를 아는가? 그것에 대한 의견은?
18. 한국문화 외에 다른 선호하는 외래문화가 있는가?
19. 국가가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를 제한하는 수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0. 2016년의 한한령의 결과를 예측해 본다면? 혹시 2006년의 반한류처럼 그렇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인터뷰 대상은 모두 19명이었다. 인터뷰는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1차는 2016년 9월 21일부터 10월9일까지였다. 2차는 10월21일부터 10월25일까지였다. 3차는 11월9일부터 11월 20일 까지였다. 1차 인터뷰는 직접 만나거나 전화, 영상통화를 통해 진행하였다. 직접 만나는 경우에 인터뷰가 훨씬 더 잘 진행되었다. 영상통화의 방식은 직접 만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시행하였지만 문제들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어서 정확한 답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2차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차 인터뷰는 결과의 신뢰도를 위해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제한하였다. 1차와 2차 인터뷰를 마친 후 의견 개진이 활발한 일부 학생들을 다시 방문하여 3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3차 인터뷰는 1차와 2차 인터뷰 이후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고 더 심층적인 의견을 얻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대상과 인터뷰 과정은 <표 3> 과 <표 4>에 정리하였다.

<표 3> 조사방법 (직접대면)

순서	성별	나이	학과	한국거주기간	중국 거주지	인터뷰 시간	시기
A	남	29	일본어	2년10개월	산동성청도시	43분	1차, 3차
B	여	26	무역	5년2개월	천진시	45분	1차, 3차
C	여	20	어학당	1년2개월	산동성위해시	35분	2차
D	여	21	어학당	1년2개월	산동성연대시	37분	2차, 3차
E	남	27	국어국문	3년2개월	길림성연길시	39분	1차, 3차
F	여	23	애니메이션	1년8개월	안휘성합비시	36분	1차
G	여	23	일본어	2년2개월	산동성위해시	42분	1차
H	여	28	경영	4년2개월	산동성연대시	40분	1차
I	여	25	국어국문	8개월	산동성봉래시	42분	2차
J	여	27	국어국문	3년8개월	산동성일조시	36분	1차, 3차
K	남	25	무역	4년8개월	길림성길림시	35분	1차
L	남	28	무역	2년2개월	산동성위해시	36분	1차

M	여	24	국어국문	3년2개월	하남성남양시	44분	2차
N	여	24	영어	4년8개월	하북성보정시	48분	1차
O	여	26	경영	3년8개월	길림성창춘시	39분	1차, 3차

<표 4> 조사방법 (전화통화)

순서	성별	나이	학과	한 국 거 주지	한 국 거 주 기간	중국거주지	인 터 뷰 시간	시기
P	여	28	국어국문	춘천	3년8개월	산둥성위방시	40분	1차
Q	여	27	국어국문	춘천	3년8개월	산둥성제남시	45분	1차
R	여	25	경제	용인	3년2개월	길림성백산시	51분	1차
S	여	29	국어국문	서울	4년2개월	하남성락양시	46분	1차

<표 3>의 조사대상은 모두 광주에 거주하고 있어서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였다.
<표 4>의 조사대상자는 광주 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전화의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한국거주기간은 2016년 10월 31일 기준이다.

제4장 연구결과

제1절 2016년의 한한령이 중국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한령을 실시하면 중국의 입장에서 과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많은 영역에서 한한령으로 인한 문제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한 문제들 중에는 예측 가능한 것도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한한령이 중국과 한국에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방송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

먼저 중국의 경우를 보면, 한한령이 시작되어 제일 크게 충격을 받은 부분이 바로 한국 드라마다. 한한령에는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 방송되는 것을 금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 중국 시청자로서는 한한령으로 인해 지금까지 중국에서 방송되고 있던 한국 드라마를 계속 볼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시청자들의 이탈이 일어나면 방송국의 수입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한한령에 의하면 중국과 한국이 공동 제작하는 드라마의 촬영도 중단되어야 한다. 문제는 현재 중국 드라마의 제작 수준이 한국의 드라마에 견줄 정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젊은 시청자들은 한국의 드라마에 대한 선호도가 강해서 중국의 많은 방송국들이 한국 드라마를 방영함으로써 시청률을 높여왔다. 이러한 전략을 취한 대표적인 방송국은 호남TV와 강수TV다. 호남TV는 2005년에 <대장금>을 방송한 후 명성을 얻게 되었고 그 후에 계속하여 <헬로 애기씨>, <소문난 칠공주> 등 여러 한국 드라마를 수입하여 지속적으로 높은 시청률을 올리게 되었다. 강수TV의 경우는 <별에서 온 그대>와 <상속자들>을 계속 방송하고 있어서 특히 젊은 시청자층의 많은 선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한령이 시작되자 중국 시청자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채널의 선택권을 잃어버렸고 방송국의 시청률도 많이 떨어졌다.

사실 드라마는 한류의 출발점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7년 중국 CCTV-1 채널에서 <사랑이 뭐길래>가 방영되기 시작했는데, 아주 높은 시청률을 받았다. 당시 이 드라마는 한국인의 생활을 중국 시청자들에게 보여 주는 매개체가 되었다(뢰위, 2006). 이후 거의 20여 년 동안 한국 드라마에 익숙해 있던 중국의 시청자들은

한한령으로 인해 갑자기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에 한계가 생기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국의 시청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

드라마 외에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도 한한령으로 인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근년에 중국이 자체 제작한 많은 프로그램들은 예외 없이 천편일률적인 모습이었다.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시청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1년 이상 방송할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채 몇 개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중국 예능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스튜디오 촬영이라는 제작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2014년에 중국의 철강TV가 한국의 <런닝맨> 제작권을 구매하고 야외에서 촬영하는 <중국판 런닝맨>(奔跑吧, 兄弟)을 자체 제작하여 같은 해 10월부터 방송하기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첫 방송부터 전례가 없던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자 중국의 CCTV도 한국의 <무한도전>과 합작하고 <대단한 도전>(了不起的挑战)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호남TV 역시 한국의 <나는 가수다>를 참조하여 제작하는 중국판 <나는 가수다>를 방송하는데 이는 중국에서 처음 제작된 음악 관련 프로그램이다. <나는 가수다>는 이미 5년째 방송을 이어오고 있으며, 매번 방송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음악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아빠 어디가?>가 방송된 이후 중국에서는 최소 다섯 개의 방송국이 아이와 관련된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위에 언급한 인기 프로그램들 외에도 중국의 많은 방송국들이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권을 직접 구매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참조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이렇게 제작되는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제작하는 중국 예능 프로그램

한국 프로그램명 (방송국)	중국 프로그램명 (방송국)
런닝맨 (SBS)	奔跑吧! 兄弟 (浙江衛視)
비정상회담 (JTBC)	世界青年說 (江蘇衛視)
나는 가수다 (MBC)	我是歌手 (湖南衛視)
아빠 어디가? (MBC)	爸爸去哪? (湖南衛視)
진짜 사나이 (MBC)	真正男子漢 (湖南衛視)

무한 도전 (MBC)	了不起的挑战 (CCTV-1)
1빅2일 (KBC)	兩天一夜 (四川衛視)
슈퍼맨이 돌아왔다 (KBS)	爸爸回來了(浙江衛視)
우리 결혼했어요 (MBC)	我們相愛吧 (江蘇衛視)
학교 다녀왔습니다 (jtbc)	我去上學了 (東方衛視)
꽃보다 할배 (tvN)	花樣爺爺 (東方衛視)
꽃보다 누나 (tvN)	花樣姐姐 (東方衛視)
복면가왕 (MBC)	蒙面歌王 (江蘇衛視)
슈퍼스타 K (Mnet)	我的中國星 (湖北衛視)
슈퍼디바 (tnV)	媽媽咪呀 (東方衛視)
더로맨틱 (tnV)	完美邂逅 (貴州衛視)
냉장고를 부탁해 (JTBC)	拜托了, 冰箱 (騰訊視頻)
불후의 명곡 (KBS)	不朽之名曲 (東方衛視)
기적의 오디션 (SBS)	奇迹夢工厂 (重慶衛視)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 방송은 거의 다 ‘한국식’ 예능 프로그램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국의 시청률이 유지되어 왔으나 한한령이 시작된 후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시청률에 영향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호남TV(湖南衛視)와 동방TV(東方衛視)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호남TV의 경우는 예능프로그램 외에 한국 드라마도 많이 수입하는 등 한국 프로그램의 비율이 높았었다. 또한 명절마다 개최되는 공연에도 매년 한국의 연예인을 초청하였다. 그래서 한한령이 시작된 후 다른 방송국에 비해 호남TV가 훨씬 더 큰 폭으로 시청률의 손실을 입었다. 2017년 2월의 경우를 보면 한한령의 영향으로 많은 웹사이트에 더 이상 한국의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조회수도 많이 줄었고 회원수도 덩달아 감소하여 회원가입비 수입도 감소하였다.

중국의 시청자들이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양국 간의 문화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이다. 사람들의 심미력, 유머감 등 비슷한 점이 아주 많다. 또한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은 중국의 프로그램보다 창의성이 있고 각 예능 프로그램마다 고유한 특색이 있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지 않는다. 이는 중국이 수입한 다른 나라의 프로그램과도 차별을 보이는 지점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심진TV(深圳衛視)는 2013년에 네덜란드의 예능 프로그램을 수입하여 <남좌여우>(男左女右)라는 제목으로 방송한 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출연자가 남자팀과 여자팀으로 나뉘어 문제에 답하고 게임을 하여 총점에 따라 승부를 정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방송 초반에는 새로운 형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지만,

매번 똑같은 형식으로 반복되는 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인기를 잃어갔다. 유럽에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중국과 유럽 사이에는 문화나 선호하는 예능의 형식과 내용 등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유럽에서 수입된 프로그램의 생명력은 길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 시청자들의 한국 예능 프로그램 선호 현상은 계속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한한령이 시작된 탓에 여러 방송국의 시청률과 수입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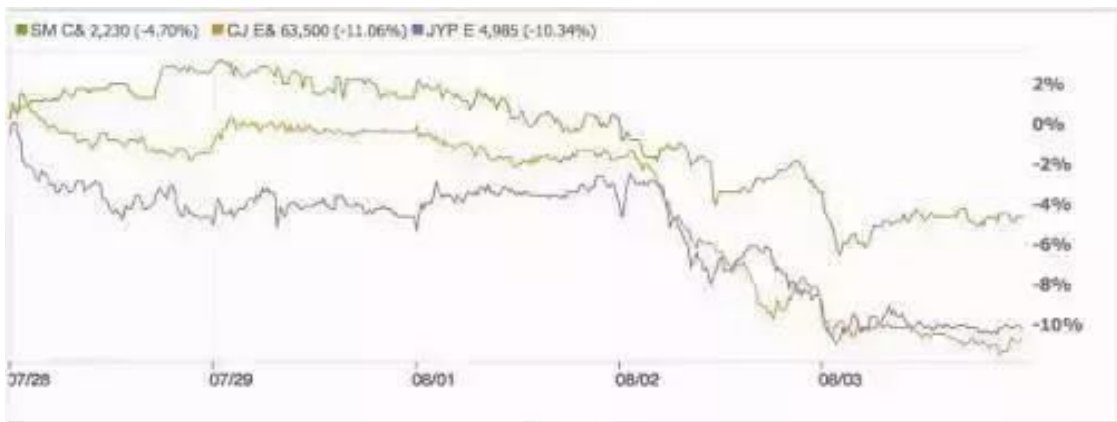
2. 산업적 영향

한한령으로 인해 중한 양국 간에 합작하는 산업에 대한 제한이 생겨났다. 근년에 중국의 문화산업은 한국의 문화 산업과 매우 빈번한 교류를 하고 있었다. 문화산업의 투자는 주로 중국과 한국이 합작하는 드라마나 영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양국이 같이 키우는 연예인들도 있었다. 이 때문에 한한령이 시작됨에 따라 한국 역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한한령이 한국에 미친 경제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자. 한한령 이후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그림 6> 참조. 순서는 SM, CJ, JYP). 다가올 미래에 한국의 엔터테인먼트가 주로 뻗어나갈 시장이 바로 중국이다. 그래서 근년에 중국의 많은 기업들은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성장 추세를 보고 투자를 진행하였다(<그림 7>참조). 그러나 한한령으로 인해 문화산업 투자와 연예인의 공연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 텐센트(Tencent)의 자회사는 YG에 8500만 달러를, 그리고 알리바바(Alibaba)는 SM에 355억원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한한령이 시작되고 나서는 이 투자가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문제도 중요하다. 근년에 한국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제작한 후 중국에 방송되는 프로그램들은 수익의 일정 부분을 한국에 내야 했다. 그러한 저작권료가 한국 방송국 수입의 한 부분이 된다. 그런데 한한령 시작 후 드라마, 음악, 예능 등이 모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중국에서 방송될 예정이던 프로그램들도 마냥 연기되고 있다. 문화산업과 방송국의 경제적인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림 6>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변동 현황



출처: “限韓令”令四大娛樂公司暴跌3615亿, 中企爲其買單? 网易新聞, 2016. 8. 4.

<그림 7> 중국 기업의 한국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투자 사례

近两年主要的中方投资收购韩国娱乐公司一览				
时间	韩国娱乐公司	中国投资公司	投资金额	股权占比
2014-08-06	KeyEast	搜狐	1500万美金	6%
2014-10-09	Next	浙江华策	5000万美金	15%
2015-01-27	Macrograph	皇家集团	700万美金	40%
2015-06-16	Redrover	苏宁环球	3100万美金	20.17%
2015-08-26	Chorokbae m Media	DMG	2100万美金	25.92%
2015-11-23	FNC	苏宁环球	2900万美金	22%
2016-01-25	Signal	华谊嘉信	1800万美金	12.62%
2016-02	SM娱乐	阿里巴巴	355亿韩元 (约1.95亿人民币)	4%
2016-03-15	SIM公司	华谊乐恒	1.26亿元人民币	26.5%
2016-03-23	HB公司	华谊腾讯	2.3亿元人民币	30%
2016-05-27	YG娱乐	腾讯 微影时代	8500万美金	4.5% 8.2%

출처: “限韓令”令四大娛樂公司暴跌3615亿, 中企爲其買單? 网易新聞, 2016. 8. 4.

더구나 한한령 이후 중국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많이 변했다. 한국과 관련된 상품의 구매에도 현저히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한국 방송국의 경우 방송 프로그램도 하나의 상품으로 중국에 수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내 한국에 대한 이미지 변화는 결국 상품 판매량 감소로 이어졌다.

한국의 영상상품 등 판매량의 변화는 당연히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국 진출이 위축되면서 소속 연예인들의 활동 역시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한한령이 시작된 후 많은 한국 드라마들이 방송 중단 된 것은 물론 중국과 한국이 합작으로 제작하는 드라마들도 도중에 배우를 바꿔야 했다. 한류스타 이영애 주연의 드라마 <사임당> 등이 그 사례다. <사임당>의 사례는 더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데, 한국과는 다른 중국의 사전제작제 시스템 때문이다. 한국의 드라마 중에는 사전제작제로 완성된 경우가 드문 반면에 중국에서는 사전심의 통과가 필수이므로 대부분의 드라마가 사전제작으로 완성된다. <태양의 후예>와 같은 드라마는 중국 시장에서 동시 방영을 목적으로 사전제작제로 완성되었고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사전제작제로 완성해놓고도 갑작스런 한한령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한 경우 드라마는 큰 손실과 타격을 입게 된다.

한한령은 이미 제작이 완료된 프로그램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미 많은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이 한국의 연예인을 출연시켜 시청률을 높여왔다. 그런데 한한령이 생긴 후에 이런 예능 프로그램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이런 예능 프로그램들은 사전 촬영과 녹화와 편집 후 방송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미리 촬영해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방송을 취소할 수 없고 계속 방송하면 한한령을 어기게 되는 딜레마에 놓이게 된다. 결국 방송국들은 부득이하게 한국 연예인의 얼굴만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그림 8>참조). 이렇게 하면 “한국 연예인이 없는” 예능 프로그램이 되어 한한령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방송국은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을 수 있었지만, 한국 연예인들의 활동에는 큰 장애가 되었다. 또한 중국 일부 시청자들의 불만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림 8> 한국 연예인을 모자이크 처리한 화면



3. 사회적 영향

중국의 젊은 사람들이 한국의 프로그램에 대해 이렇게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이유는 한국 프로그램이 처음 중국에 등장했던 때의 배경과 관련이 있다. 한국 드라마는 중국에서 한국대중문화를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후에 한국 음악, 한국 영화 등이 중국에서 유행하였다. 사실 한중수교 전에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은 남조선, 1988년 한성 올림픽 등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한국사회, 한국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중국인들은 한국사회와 한국인의 생활모습을 이해하기 시작하였고 한국 드라마의 재미를 느꼈다.

한한령은 방송산업 외에 중국사회의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 사례를 보면 중국의 한 중학교는 한한령 때문에 한국의 자매학교와 갖기로 했던 교류방문의 시간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러한 일로 학생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촉하는 기회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 또한 한한령은 중한 양국의 관계를 예전보다 좋지 않게 만들었다. 이러한 국가간 분위기는 나중에 한국에서 취직하려는 중국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한한령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한국 정부가 중국인들의 한국 취업을 제한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한한령은 방송 문화 산업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문화 이외의 다양한 교류에도 장벽을 만들게 된다.

중국의 2006년의 반한류에 관한 연구를 보면 반한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반한류가 확산되면서 반한류의 사회문화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한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중국의 ‘반한류’현상 때문에 양국 간의 외교 및 문화교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한류를 통한 갈등을 자제하고 상호이해와 협조를 해야 한다(강내영, 2008). 다문화시대에 문화를 서로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반한류에 대한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반한류는 중한 양국 간의 우호를 증진할 수 없고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다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시작된 한한령은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난 2017년까지도 폐지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한령에 방송국은 물론 일반인들도 모두 찬성하는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 많은 중국 팬들은 아직도 자기가 좋아하는 한류 스타를 지지하고 있다. 비록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지금 중국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지지한다. 한류를 좋아하는 중국 팬들은 국가 간의 갈등에 한류 스타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한다.

한한령은 기본적으로 중국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포한 정책이다. 정부는 한한령을 통해 명백히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한한령은 단순히 한류에 대한 불만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한한령의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의 사드 설치를 결정한 후 정치적인 압박 수단으로 실시된 정책이다. 이런 정책은 이미 양국의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한한령은 방송영역에서 먼저 시작되었지만 결코 방송영역에만 제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국가 간의 갈등이 문화교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 한한령은 국가 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에 대해 문을 닫게 함으로써 결국 양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제2절 20대 제한 중국 유학생들의 한류에 대한 인식

1. 제한 중국 유학생들의 한류에 대한 관심도

지금까지 한류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인들이 한류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보면 대부분 한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한류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논문의 조사대상인 20대 재한 중국유학생들은 대부분 한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한류가 중국 내에서 지속되어 온 시간도 이미 20여년이 넘었다. 그동안 중국 내에서 한류는 국가의 정책, 사람들의 선호 정도 등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한류에 대한 시각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 한류의 기원은 1980년대로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류를 알고 접촉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방송되었던 한국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HOT등의 한국 대중음악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소개된 것도 90년대였다.

이 논문에서 인터뷰한 현재 20대 대학생들은 당시 대부분 초등학생이어서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과 연예인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단 한류를 접한 이후부터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류에 대한 생각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이 인터뷰를 통해 드러났다. 인터뷰를 한 학생들은 대부분 처음 본격적으로 한류문화를 접하기 시작한 계기로 2003년 <가을동화> 혹은 2005년 <대장금>의 방송 시작을 꼽았다. 물론 그보다 조금 더 늦게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운 후 또는 한국에 유학을 온 후 한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학생들도 있었다.

필자는 한국체류중인 중국 유학생들 19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한류 문화 중에 가장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을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 한류 중 선호하는 분야

분야	음악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영화	게임	음식	복장과 미용
응답수	7인	13인	4인	1인	2인	1인	2인

인터뷰 대상 학생들이 가장 많이 꼽은 한류 분야는 바로 드라마다. 음악과 예능 프로그램이 그 뒤를 이었고, 개인의 취향과 취미에 따라 게임, 음식, 복장과 미용을 선호하는 학생도 있었다. 응답자의 수로 보나 한류에 대한 초기 인식으로 보나,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류를 접하고 한국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류를 통해 영향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한류가 나에게 주로 미치는 영향은 드라마, 음악 이런 방면이 아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는 옷차림이다. 나는 한류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 중 주인공의 옷차림을 따라하고 자기의 스타일을 찾았다. 그리고 머리 스타일, 화장 스타일 이런 것도 많이 배웠다. 나에게서는 거의 생활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쳤다.”(학생B)

“한류가 나에게 미친 영향은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르다. 그것은 바로 어린 나이에 연애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고 혹시 나중에 그 사람과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너무 멋있고 일반사람들과 그들을 비교할 수 없다.”(학생G).

“예전에 한류는 나에게 한국에 대해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현재 한국어학과에 다니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 영화를 통해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고 그것이 전공공부를 하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학생J)

“처음에 한류를 접할 때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한국어학원을 가서 한국어를 배웠다. 지금은 한류 문화를 접하는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어디든지 쇼핑할 때 아직도 한국스타일을 더 선호한다.”(학생O)

학생들은 한류를 문화의 우수함과 연결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재한 중국 유학생들은 드라마로 시작해서 언어나 패션 등 생활 전반적으로 한류 혹은 한류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중국 문화에서 찾기 힘든 것을 한류가 가지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한류가 중국에서 인기가 많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다. 생활과 문화 전반적인 면으로 한류의 영향이 컸다는 대답이 많았던 반면, 한류의 영향을 거의 못 느끼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도 있었다. 그러나 한류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대답한 경우는 한류에 대한 무관심이라기보다는 대중문화와 연예 자체에 대한 무관심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나는 한류의 영향을 거의 못 받았다. 중국의 연예부문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한류에 대한 관심은 더 없다.”(학생A)

“한류는 나에게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 나는 평일에도 한류에 대한 관심이 없고 가끔 한국어 듣기를 연습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한, 두 회 정도 본다. 다른 때에는 거의 접촉하지 않는다.”(학생F)

이처럼 학생A와 학생F의 대답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를 전공하지 않거나 대중문화를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유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한류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20대의 재한 중국 유학생들이 한류에 접촉하는 방식은 대개 비슷하다. 처음에 TV 드라마를 보고 그 후에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영화를 본다. 현재는 TV를 통해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 또한 그 빈도는 학생들의 여유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시간이 있으면 자주 보고 없으면 한 달에 영화 한 편 정도를 보게 된다. 한류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그저 여가생활의 일부로 한국 대중문화를 즐기는 정도였다.

응답자들의 한류에 대한 영향력 인식 여부에서 흥미롭게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은, 한류에 대한 관심이나 호감도가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과 많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한국 드라마의 열풍에 힘입어 한국으로 여행 오는 사람이 생겨나면서, 비슷한 취향의 가족이나 친구들과 한류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드라마의 경우는 세대에 따라 좋아하는 내용이나 장르가 달라지기도 했지만, 한국의 복장이나 화장품에 대해서는 10대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관심을 보인다는 점도 특이할만하다. 19명의 응답자 중에서 자기 주변에 한류를 좋아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즉 한류에 대해 자기 자신의 관심이 크지 않은 경우라도 주변에서 한류에 대한 호감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2. 한류 상품의 우수성

한류가 중국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높은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바로 한류가 가진 자기 우수성에 있다. 중국의 방송국들이 자체 제작하는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내용면에서 볼 때 설교의 목적이 너무 강하게 나타난다.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 수입된 후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재미있는 드라마 내용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한류는 중국에서 즉각적인 성공을 누렸다. 또한 한류의 드라마에는 아름다운 배경이 있고 미남미녀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배우들의 외모는 중국 젊은이들의 시선을 잡았다.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은 필자가 조사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생각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드라마의 경우를 보면 한국 드라마는 한국 대중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중국인들은 드라마를 통해 한국사회와 한국인의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한국 드라마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는 중국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또는 한국의 드라마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중국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와 많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중국에 수입된 한국 드라마 대부분이 애정, 친절, 우정을 주제로 하고 일반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잘 표현한다(화개경, 2011).

그렇다면 필자가 인터뷰한 학생들은 한류가 중국에서 인기를 누리게 되었던 이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들의 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로 한국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수준, 내용의 수준이 높고, 정부의 제한이 강하지 않아서 한류가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 드라마의 경우를 보면 기획이 잘되었고 진실성이 강하며 극의 전개가 빠르기 때문에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학생J)

“한국 프로그램의 내용은 아주 풍부하고 한국은 문화 수출을 중국보다 더 잘하고 있어서 한류가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얻었다. 또한 정부의 제한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가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이러한 나라간의 차이 또한 한류가 중국에서 성공을 거두게 된 한 가지의 이유이다.”(학생C)

“한국의 예능프로그램은 제작 수준이 아주 높고 중국의 제작수준은 아직까지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학생F)

드라마나 기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제작의 기술적인 수준 외에도 국가의 여러 가지의 방송에 관한 정책이 중요하다. 중국은 방송에 대한 제한정책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제작하는 한국의 프로그램과 비교하면 차이가 나타난다.

인터뷰한 학생들은 중국 방송 산업의 발전 정도가 이러한 국가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중국의 방송산업은 한국과 비교하면 그렇게 일찍 발전하지 못하였다. 또한 정부가 방송국에 간섭하기 때문에 방송국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여러 한계가 생긴다.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방송의 규정을 범했다는 이유로 여러 번의 수정을 거친 후에야 방송될 수 있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시청자는 재미있는 내용을 다 볼 수 없다. 또한 한류가 처음에 중국에 등장할 때 중국은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었고 외래 문화를 필요로 하였고 한류가 중국에 열풍을 일으킨 것은 당연한 일이다.”(학생O)

“한국의 프로그램은 주제가 다양하고 한국정부의 간섭도 별로 없고 이것은 우리나라와 다르고 그 점이 바로 한류가 중국에서 인기를 받은 이유다.”(학생D)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에 존재하는 엄격한 방송 정책이 방송의 발전에 장애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시청자들은 정부 규제가 강한 중국의 방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제작되는 한국 프로그램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다.

그밖에 한류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주로 한국 연예인들도 함께 좋아한다. 그들의 얼굴과 옷차림이 멋지며 연예인의 실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

“내 생각에 한류가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이유는 중국에 멋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너무 많고 한류가 정확히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학생I)

“한류가 중국에 널리 전파되는 이유는 한국의 방송산업이 매우 발달하였고 내용도 재미있고 가수들의 옷차림도 국내 스타일과 다르다는 이유이다. 이것은 국내의 방송산업이 배워야 하는 것이다.”(학생Q)

“한국의 연예인들은 실력이 있고 공연할 때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드라

마같은 경우도 그러하다. 이것은 중국의 연예인과 많이 다르다. 중국의 한 연예인은 출연료를 많이 받으면서도 촬영할 때 계속 스티트맨을 쓴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다.”(학생R)

한국 연예인들은 그들이 받는 대우 이상으로 팬들에게 노력을 보여준다는 인식이 강했고, 그렇게 스타일을 가꾸는 연예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한류가 이렇게 높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원인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한류상품의 자체적인 특성과 우수성이다. 한국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수준이 다 아주 높다. 두 번째는 한국 정부의 제한이 강하지 않아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아주 풍부하고 한류가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중요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한류의 우수성을 잘 나타냈다.

3. 한류에 대한 평가

한류는 중국에 큰 열풍을 일으켰지만 사람들이 한류에 대해 가진 태도나 시각은 모두 다르다. 필자가 인터뷰한 학생들 중에는 한류를 통해서 한국에 관한 문화를 알고 자기의 시야를 넓히려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고 한류에 대해 중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있었다. 또한 한류를 좋아하지 않고 한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들의 한류에 대한 평가를 유형별로 정리해 보았다.

먼저 한류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한류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나는 한류를 대단히 좋게 평가한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한국 드라마 <가을동화>를 봤다. 그 때부터 한국의 드라마와 한국어에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대학교 때 전공으로 한국어를 선택하였다.”(학생I)

한류에 대한 선호도와 별개로 평가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

도 있다. 한류는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이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한류는 우리가 한국을 알 수 있는 수단일 뿐이다. 그러므로 한류에 대한 나의 생각은 중립적이다.”(학생D)

“한류문화는 한 가지의 오락 수단으로 아주 좋은 것이다. 특히 나 같은 한국어학과 학생에게는 좋은 점이 많다. 예를 들어 한국의 드라마로 듣기 능력을 연습할 수 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드라마를 보면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다. 특히 공부하는 시간을 놓치게 된다. 예전에 나는 항상 드라마를 많이 봤었는데 그 결과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과제를 잘 완성할 수 없었다. 내 친구 중에도 상당수가 한류스타를 너무 좋아하고 수업을 할 때도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를 생각하고 있어서 공부에 방해를 받았다.”(학생J)

학생J는 한류 자체의 문제보다는 한류의 오락성과 중독성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을 경우의 부작용을 언급했는데, 최근 한류에 빠져서 학업을 소홀히 하는 학생들이 많은 이유로 한류를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흥미롭게도 초기 한류에 비해 최근의 한류 문화가 더 다양해졌다는 점에서 한류를 배격하는 학생의 의견도 있었다. 중국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내용에 지나치게 탐닉하거나 한류 스타에 빠져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경우를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 드라마를 적당히 보면 상관없고 너무 지나치게 보면 한류는 바로 부정적인 것이 된다. 내 주변에 바로 이런 친구가 있다. 매월 한 번 서울에 가서 좋아하는 스타를 만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통해 모은 모든 돈을 다 쓴다. 이런 의미 없는 행위를 정말 이해할 수 없다.”(학생G)

“나는 예전에 한국의 프로그램을 선호했지만 지금은 미국의 프로그램을 더 선호한다. 한국과 미국 프로그램의 내용을 비교하면 미국의 프로그램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 나이가 들어가면서 미남이나 미녀에 대한 관심보다는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학생C)

“내 생각에는 한류는 부정적인 것이다. 그 속에 좋지 않은 요소가 있다. 나이가 어린 여자들에게 사랑에 대한 안 좋은 가치관을 주고 또한 연예인의 학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연예인들 중 학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연예인도 문화수준이 낮은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들이 출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학생A)

재한 중국 유학생들은 성장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류문화의 선호도도 완전히 다르다. 나이가 많지 않을 때부터 바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사람은 당연히 한류에 대한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학생, 아니면 한국문화 외에 미국, 일본, 태국의 문화를 선호하는 학생들은 한류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기도 했다. 심지어는 지금 가장 자주 접하고 있는 한류문화가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다며 한류 문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멀리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 재한 유학생들의 한류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았다. 그들이 한류에 대해 가진 생각은 서로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한류가 중국인들의 삶과 생각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이다.

4.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사람들은 그 나라의 대중문화를 통해 그 나라의 문화전반과 그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 한류는 이런 점을 입증하는 좋은 예시다. 재한 중국 유학생들은 한류를 통해 한국문화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한국으로 유학하려는 생각을 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그들이 한국에 오게 된 배경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과 차이점이 많고, 한국에 가서 생활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국과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책과 생각에 차이가 있어서, 중국인들은 한국과 한류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신기함과 호기심은 한류가 중국에서 널리 확산되는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다.

“대학교 1학년 때에 선배와 선생님을 통해 한국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이므로 중국 사회와 다르니, 한 번 가서 직접 체험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마침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래서 바로 신청하여 여기에 왔다. 민주사회여서 더 공정하고 많은 것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학생I).

이 인터뷰 내용에서 보듯이, 다른 정치체제와 문화를 경험하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의 경우 한국 사회를 좋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였다. 학생들이 가진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의 경향은 ‘한류’를 한국의 드라마와 가요와 영화 등에 대한 관심과 선호가 증가한다.

한류를 처음 중국에 유행할 때 인기가 아주 높고 접한 중국인들이 갑자기 국내에 들어온 한국 문화를 반대하는 행위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한류 시작의 배경에는 중국정부의 개혁개방을 통해 외래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생겨나고 있던 중국의 당시 상황이 놓여있다. 당시 중국 정부도 사람들이 외래문화를 접촉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지하였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외래문화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아주 빨랐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양국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비슷한 점이 많다는 인식이 있어 문화를 교류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그 후 한류의 점차적인 발전과 함께 기업 간에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에서의 한류의 형식도 점차 변화해 나갔다. 처음 한류가 중국에서 발전할 때 중국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관심을 집중했다. 그 후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과 관련된 식당, 상점 등이 생기고 한류에서 파생된 상품이 등장했다. 소비자의 소비 형식도 이에 따라 변하였다. 또한 점차로 사람들이 중국산 한류 파생 상품을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한국산 상품을 구매하거나 때로는 직접 한국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사는 행위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직접적으로 한국의 경제와 여행업을 촉진시키며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한류는 이미 양국 간의 문화적인 교류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한류를 통해 중국은 새로운 문화를 즐길 수 있었고 한국도 많은 이익을 얻었다.

제3절 20대 제한 중국 유학생들의 반한류에 대한 인식

1. 반한류에 대한 생각

중국에서 중요한 반한류의 흐름은 두 번에 걸쳐 일어났다. 첫 반한은 2006년 문화보호 등의 이유 때문에 발생하였다. 그리고 2016년 두 번째 반한의 흐름이 생겼으며, 첫 번째 반한에 비해 조금 더 장기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 문화의 교류 과정에서 이러한 반발이 일어나는 것이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다. 문화접변이론에 따르면 문화는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와 접촉하면서 수용 또는 저항을 통해 변화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김익기, 장원호, 2013). 두 번의 반한류 역시 중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문화와 접촉하면서 생겨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특이한 것은 2006년에 비해 2016년의 반한은 문화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이유에서 출발한 특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2006년의 반한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그러나 인터뷰 대상인 20대 제한 중국 유학생들은 2006년엔 아직 어린 나이어서 그런지 당시의 반한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었던 학생은 한 명 밖에 없었다. 그 학생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나이가 좀 더 많았고 중국의 거주지는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까웠다. 그도 2006년 반한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았다.

“나는 2006년의 반한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그것과 관련하여 조금 기억이 난다. 나는 그 때 산둥성 위해시에 살고 있었다. 위해는 한국과 가깝고 한국과 관련이 있는 많은 것들을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빨리 접할 수 있었다. 그 때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 등을 아주 배격하였다. 2012년의 중국의 반일(反日)행위와 비슷하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았었다.”(학생L)

2006년에 중국에 반한류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알더라도 많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설사 인터뷰 대상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더라도 2006년의 반한류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할 확률이 크다. 그것은 당시의 중국 환경과 관련이 있다. 첫째, 당시 중국은 인터넷의 사용이 지금과 같이 활발하지 않았다. 2006년 반한류와 관련된 내용이나 자료를 중국에서 찾으려 하면 어려움이 크다. 중국어로 된 자료나 보도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때와 관련된 것을 알고자 한다면 한국어 논문과 보도 등 한국의 문헌자료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2006년 중국의 반한류 행위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불만과 정부의 자기 문화를 보호하려는 이유가 겹치면서 시작하였다. 그런데 2006년 후반부터 중국 내의 한류 전과 양상에 변화가 있었다. 드라마, 영화 등 영상물 위주로 수입하는 형식이 아니라 여행, 패션, 유학 등 여러 가지의 형식으로 한류가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가수 그룹 슈퍼주니어에 최초로 중국인 멤버인 한경(韓庚)이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8년에는 중국시장을 본격적으로 겨냥하여 중국에서만 활동을 진행하는 슈퍼주니어-M이 데뷔하였다. 한국어 노래와 중국어 노래가 동시에 음반으로 나오고 큰 인기를 다시 누리게 되었다. 한류의 열풍도 그 때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학계에서 2006년 반한류 전의 한류 형식을 ‘구한류’라고 부르고 그 후에 나온 한류의 형식을 ‘신한류’로 부른다.

반한류의 경과를 살펴보자면 2006년에 중국에서 반한류 행위가 시작되었고 1년 정도 경과 후 반한류는 끝났다. 한류의 내용에 대한 불만족과 정부의 자문화를 보호정책이 맞물려 시작된 반한류였지만, 새로운 콘텐츠로 다시 들어오는 한류의 흐름을 정부가 막을 수 없었다.

반한류의 행위는 중국 밖 일본에서 ‘혐한류’라는 정서로 표출되기도 했다. 2005년 일본에서 <혐한류> 라는 만화책이 출판되었다. 이는 반한류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출판된 후 큰 판매량을 기록했고 그 후에 <혐한류2>가 출판되었다.

그렇다면 현재 20대의 재한 중국유학생들은 2005년과 2006년 일본과 중국에서 있었던 반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에 대한 인터뷰를 정리하였다. 먼저 혐한류와 한한령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일본의 혐한류에 대해서는 일본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알고 있었다.

“혐한류는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생겼다. 나는 그것에 대해 찬성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는다.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니고 혐한류는 나에게 영향도 없다. 혐한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혐한류가 생긴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학생A)

“우리는 수업할 때 일본의 험한류에 관하여 배웠다. 아주 큰 사건이다. 그 이유는 전쟁 때문에 일본에 많은 한국 사람이 남아 있었다.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도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특권이 너무 많아서 일본 사람의 불만을 일으켰다. 또한 한국 연예인들이 일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연예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 주로 두 가지의 원인 때문에 험한이 생겼다.”(학생G)

위의 의견에서 보듯이 학생들은 주로 일본의 입장에서 험한류의 원인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자국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갖지는 않는 것으로 보였다. 그 밖에 일본에서의 ‘험한류’의 이유로 민족주의적인 인식이 아주 강한 일본에 한류가 유입되는 것에 대한 정서적인 거부감을 말한 의견도 있었다.

2016년에 중국의 국가광전총국(國家廣播電視總局)이 내린 한한령은 한국과 관련된 영화와 예능 프로그램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었으나 그 근원은 정치적인 문제에 있다. 중국인과 중국 언론은 한국의 사드배치 때문에 중국이 자국을 보호하는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한한령으로 나타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한한령이 공식적으로 중국의 언론에 보도된 것이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한한령에 관한 소식은 주로 인터넷 뉴스를 통해 알거나 주변의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한령에 대한 제한 중국 유학생의 의견을 찬성, 중립, 반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한령에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주로 중국의 이익이 한류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나는 한한령을 찬성한다. 한류문화는 유럽, 미국의 문화보다 별로 의미가 없다. 한국문화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으니 제한하는 것도 괜찮다.”(학생A)

“근년에 한류의 영향이 너무 크다. 한류를 조금 제한하면 더 좋겠다. 중국의 문화를 발전하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학생F)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중국이 자국을 위해 한한령을 반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찬성한다.”(학생H)

“한국의 연예인은 중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심지어 중국의 연예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한한령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중국에 좋은 일이다.”(학생O)

“한한령은 정치의 수단을 통해 한국의 경제에 대해 제한하는 정책이다.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것이다. 중국은 근년에 한국의 문화산업에 대해 많은 지원을 주었다. 만약에 중국과 한국 사이에 정치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중국도 자신의 이익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한한령을 반포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학생D)

찬성하는 의견들은 주로 국가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한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류를 받아들이며 문화적 이익이 생기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국익에 방해가 된다면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문화적 교류를 정치적이거나 경제적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중립적인 의견을 가진 학생들은 주로 자기 개인의 측면에서 한류를 평가했다. 한류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며 개인에 미친 한류의 영향도 크지 않기 때문에 한류에 대해 양시양비론의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요즘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 이런 것에 대해 예전보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 그래서 한한령은 나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한류를 반대하는 행위를 이해할 수 있지만 나는 아직도 한류 중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다 거절하지는 않을 것이다.”(학생B)

“한국의 연예인들은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다. 따라서 한한령을 찬성하지만 한국의 프로그램이 중국에 없다면 나중에 중국은 자신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참조할 수 있는 것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놓치게 될 것이다. 중국의 방송국은 아직까지 수준이 아주 높지 않다. 한류의 많은 프로그램을 꼭 참조해야 된다.”(학생L)

중립적인 의견은 주로 한류에 대한 큰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많이 밝혀주었는데, 한류를 국가 간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문화나 방송산업에 대한 문제로 구체화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한한령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중국 방송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류를 완전히 배척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중립적인 의견과 다르게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한한령 때문에 자기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력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한한령의 기원은 정치적인 문제다. 한한령은 문화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면 정치적인 수단으로 해결해야 된다. 왜 문화적인 수단을 사용하는가?”(학생E)

“내가 여름방학 때 집에 있는데 갑자기 한국 드라마가 중국의 TV에서 다 사라진다면 너무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나는 나중에 한국에 취직하고 싶다. 만약에 한한령이 계속 된다면 내가 좋은 직장을 찾으려고 할 때 많은 불편이 생길 것이다.”(학생J)

“내 생각에는 한한령과 사드는 상관 없다고 본다. 그냥 비슷한 시기에 나온 내용 뿐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발언도 없다.”(학생P)

“사람들은 한 가지의 문화를 좋아하고 그 문화를 좋아하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아주 강한 수단으로 간섭하면 혹시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방송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하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중국의 방송산업과 한국의 방송산업을 비교하면 중국의 방송산업에 부족한 것이 많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국 방송물 중에 좋은 것을 모방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일 좋은 방법이다.”(학생R)

한한령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의견은 주로 국가가 문화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정치를 이용한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드나 정치적 관계는 명목상의 이유일 뿐이고, 한한령의 과정에서 자신과 같은 일반 시청자들이 입을 문화적 손실 문제가 더 크다는 인식이었다.

한한령이 시작한 후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재한 중국 유학생들은 한한령에 대해 영향력을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한한령의 영향력을 느끼는 사

람들은 한류 자체보다는 한한령이 자신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취직할 때 혹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환율 변동이 심해 환전할 때 어려움이 크지 않을까 등의 일상생활에 관한 문제였다.

한한령이 처음 시작될 때 중국과 한국 국민이 모두 가장 궁금해 했던 것은 중국에 진출하여 활동하는 한국 회사들의 향방이었다. 혹시 한한령이 중국에 있는 한국 회사에도 영향을 주었을까? 학생I의 답을 보면 아직까지는 큰 영향력은 없는 듯하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중에 지금 중국 산둥성 연대시 LG회사에 취직한 사람이 있다. 나는 얼마 전에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그 분은 한한령이 나온 후 회사에서 예전과 거의 차별이 없다고 답하셨다. 그것에 관련된 정책도 없고 한한령의 영향을 못 받았다고 대답하였다고 하였다.”(학생I)

한한령이 처음 반포되었을 때는 주로 한국의 방송물, 연예인, 한국에 있는 한국 회사의 투자에 대한 제한이 주요 내용이었다. 일반 회사와 한국과 관련이 있는 직업들(한국어 선생님, 한국 화장품 판매자) 등은 그 범위 안에 없고 한한령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물론 이 인터뷰가 행해진 이후 한한령의 긴장이 더 커지면서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 등에 대한 광범위한 보이코트가 행해지기도 했다. 롯데마트에 대한 제재는 중국 정부에 의해 법적으로 행해지기도 했고 중국 소비자들에 의해 불매운동으로 변지기도 했다. 그러나 인터뷰 당시 제한 중국 유학생들 상당수는 한국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한한령의 구체적인 영향력을 느끼지 못했다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 잠시 머물고 돌아왔던 학생들도 중국 방송에서 한국 프로그램을 거의 볼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 특별한 의문을 갖거나 영향력을 느끼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방송이나 문화보다 그들에게 가장 큰 걱정으로 다가오는 것은 일상에의 영향이었다. 그들은 앞으로 자신의 취업 등에 한한령이 불이익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2. 중국의 방송업에 대한 제한 중국 유학생들의 생각

제한 중국 유학생들 중에는 한한령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한한령이 일단 시작되면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방송물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같았다. 문제는 중국 방송과 한국 방송의 프로그램을 비교하면 수준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 학생들이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는 것이다. 한한령 때문에 중국이 한국 프로그램을 수입하지 못하거나 한국과 합작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한국 방송을 참조하여 유지했던 높은 시청률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학생들이 이러한 의견을 보인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방송정책 때문이다. 중국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방송하기 전에 꼭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만약에 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될 수 있는 수준이 못된다고 판단되면 바로 다시 수정해야 한다. 이는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원래의 좋은 내용을 많이 잃고 시청자의 시선도 잡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쉽다. 제한 중국 유학생의 의견도 그렇다.

“중국의 정부는 언론, 방송에 대해 간섭이 심하고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내용은 설교적인 의미가 너무 강하다. 정책안들을 전시하고 보여주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진실성이 없다.”(학생A)

학생들은 중국의 방송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강한 규제를 받고 있어서 내용이나 수준에서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의 진실성이나 질적 수준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그런데 교육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화면이나 언어를 너무 딱딱하게 만들면 프로그램의 인기를 유지할 수 없다. 근년에 중국의 방송프로그램이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을 많이 참조, 합작하였는데. 만일 지금부터 독자적으로 제작한다면 프로그램의 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제한 유학생들은 걱정을 한다.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이 계속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모방하고 있다. 만약에 이런 한국적인 요소가 없다면 앞으로 중국 방송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상상할 수 없다.”(학생P)

“한국의 프로그램은 진실성이 아주 강하고 특히 감정을 표현할 때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그것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항상 몇 회만 보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시청을 중단한다.”(학생M)

“근년에 중국의 오락 프로그램의 수준이 좀 올라가고 내용도 재미있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한국의 프로그램을 모방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의 프로그램이 더 잘 발전하려면 한국 프로그램의 참조가 꼭 필요하다.”(학생I)

“중국의 많은 프로그램이 한국보다 수준이 정말 낮다. 계속 시청하게 되면 내용이 너무 어색하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한국의 프로그램을 더 많이 배워야 한다.”(학생E)

“한국의 드라마는 제작이나 내용에 특색이 있고 아주 재미있다. 중국에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와서 너무 재미없다.”(학생O)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재한 중국 유학생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프로그램의 진실성과 제작의 수준이다. 근년에 중국의 방송국은 한국과 합작하고 많은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지만 아직까지도 독자적인 제작을 유지하는 방송국도 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형식의 제작방식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아주 낮다. 방송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한한령은 시청자 개인에게 내려진 정책이 아니라 방송국에 대한 규제와 제한의 형식으로 내려진 정책이다. 따라서 시청자들로서는 방송국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한한령에 따른 방송의 변화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한령이 처음 시작할 때의 경우를 보면 중국의 방송국들은 한국 연예인들이 참가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였다. 방송국의 이런 행위에 대해 재한 중국 유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나는 모자이크 처리하는 행위를 정말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의 연예인도 프로그램을 위해 열심히 촬영했다. 모자이크 처리하면 이 한국 연예인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학생H)

“방송국이 한국 연예인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고 들었다. 이런 행위가 사실은 필요 없고 좀 유치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학생A)

특정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행위는 사실 불필요하다. 모자이크 처리된 화면을 보는 시청자들 중에는 한한령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있었는데, 갑작스런 모자이크 처리가 다

른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모자이크 처리 화면이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쉽게 끌게 되면서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워지는 등 프로그램이 질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21세기 초에는 각국의 방송국의 수준 차이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중국 방송국의 결점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 10여년이 지나도록 중국의 많은 방송국은 10년 전 보다 나아졌다고는 해도 수준이 많이 상승하지 않았다. 또한 방송국은 유명 인사 탐방기도 계속 방송한다. 그런데 탐방기의 사회자는 예의가 없고 계속 의미 없는 질문을 하고 항상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중국 방송의 발전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다 한국 프로그램을 참조하고 제작한 것들이다. 중국 정부의 방송물에 대한 간섭은 여전히 방송국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중국이 지금까지도 수준과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제작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좋은 예능 프로그램이 많이 없다보니 오락을 다루는 신문들의 수도 많이 감소하였다. 한한령이 예능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중국 언론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과연 한한령이 한국을 제한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한한령은 중국의 방송산업과 다른 분야에도 분명히 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한한령의 결과에 대한 생각

재한 중국유학생의 생각에 따르면 한한령은 중국의 방송에 이미 여러모로 영향을 미쳤다. 방송 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국가는 정치적 목적으로 문화를 이용하거나 문화를 간섭함으로써 정치적 문제 해결을 꾀하는 일을 지양해야 한다.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이 단지 문화나 방송 프로그램 뿐 아니라 일부 사람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TV에서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없고 인터넷에 많은 사이트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려면 돈을 써야 하고 귀국할 때도 공항에 검사하는 것이 아주 엄격해졌고 나는 마음이 좀 불안하였다.”(학생J)

비록 소수의 경우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실제 중국 학생들은 생활에서 나타나는 변화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처음 한한령이 시작했을 때 미처 예상치 못했던 일이지만, 한한령은 학생J의 의견처럼 한국인은 물론 중국인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재한 중국 유학생들 대부분은 국가가 문화적인 수단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개인의 삶을 제약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 국민들의 삶 또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중국은 문화적인 수단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반대한다. 한류는 양국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다. 양국의 발전을 위해 한한령을 없앤다면 더 좋겠다.”(학생R)

“나는 예전에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미국의 어느 지역 사람들은 자기의 문화만 배우고 TV에서 다른 국가의 프로그램을 거의 방영하지 않았다. 그곳의 사람들은 자기의 문화가 아주 순수하다고 믿기 때문에 아주 자랑스러워한다. 반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이 곳 사람들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국가의 문화를 배격하면 그 국가는 낙후된 나라가 된다. 북한이 바로 이렇다. 중국의 한한령이 아직까지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만일 국가의 간섭이 너무 심하면 중국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학생E)

한류가 중국에서 처음 번져나갈 때 문화는 물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교류 또한 함께 활발해졌다. 이를 통해 양국은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중국 국내에서 한류를 제약하면 이런 문화교류를 유지할 수 없고 일반 국민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문화교류가 갑자기 중단된 데 대한 충격이 형성된다.

한한령이 시작된 지 이미 반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한국의 연예인들 대부분은 중국으로 갈 수 없게 되었고 이는 한국의 경제에도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내부에 있는 중국인은 물론 재외 중국인들도 한한령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로 한국에서의 취업과 같은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또한 중국의 방송산업과 한국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연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한한령이 궁극적으로 중국정부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재한 중국유

학생들의 의견을 정리하자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한령이 중국에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한령은 중국에서 성공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만일 한한령이 성공을 거두려면 인터넷을 다 금지해야 된다. 한 예시가 이러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나는 지금에 서울에 있다. 그런데 여기에 온 중국의 여행단 들을 보면 거의 감소하지 않다. 면세점도 하루 종일 시장처럼 사람이 아주 많고, 한한령이 이들에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학생S)

학생S는 한한령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두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나마 일부분의 영향에 지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자면 정부가 원하는 소득을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한령이 시작된 이후에도 여행과 쇼핑은 계속되고, TV로 한국 프로그램을 보기 어렵게 되었지만 인터넷에서는 아직도 한국 프로그램들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요즘 한한령 때문에 새로운 한류문화를 접촉할 수 없다. 그런데 예전에 나온 것 들이 계속 있고 사람들은 보고 싶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다.”(학생A)

“한한령은 중국에서 성공 할 수 없다. 중국에는 한류를 선호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 TV에서 볼 수 없으면 인터넷에서라도 볼 수 있다. 중국의 인터넷에서 볼 수 없으면 한국의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방법을 꼭 찾을 수 있다.”(학생C)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TV에 비해 인터넷에 대한 정책이 그렇게 많지 않다. 따라서 일단 TV에서 한한령이 시작되었더라도 인터넷에는 여전히 한국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한한령이 결국 정책이기 이전에 사람들의 정서에 관한 것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정한 목적으로 하나의 문화를 심하게 제약하면 오히려 역효과도 그만큼 클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 중국내에 한류에 대한 요구가 많다. 한한령을 시작하고 영상물, 일상

생활 중에 쓰는 화장품, 복장 이런 것에 대해 중국 사람의 요구가 충족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가 자국민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을 더 열심히 하겠는가?”(학생J)

사람은 사회의 주체다. 학생J의 의견처럼 국가는 국민의 일상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으면 국민의 적극성도 떨어질 것이다. 중국 정부가 반포하는 정책이자 규칙이라는 측면에서도 한한령에는 한계가 있다. 제재를 가하게 되면 한국측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대응책을 낼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에 한류를 발전시킬 수 없다면 한국은 다른 수단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수입품의 가격감소와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다.”(학생L)

한국도 한한령의 피해당사자인데 자국의 손실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나라는 없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한한령이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임을 생각하면, 정치적인 문제의 변화와 해결 정도에 따라 국가의 대외정책도 계속 변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발전하는 것도 외래문화를 떠날 수 없다. 한한령을 실시한 후 잠시 동안은 자기 나라의 문화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은 아직 더 편안한 사회환경과 다양한 문화를 원하다.

“한한령의 진정한 목적은 한국 문화가 중국에 발전하는 것에 대해 한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에 경고하는 행위다. 만약에 문제를 잘 해결하면 한한령도 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학생M)

“지금 중국 정부는 한류를 제한하지만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한류를 접촉할 기회가 있다. 나는 요즘의 신문을 봤다. 요즘에 한국 드라마를 계속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6일(2016년 11월 16일)에 방송하는 <푸른 바다의 전설>을 그 다음날에 바로 중국에서 볼 수 있다. 한류문화를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외래문화를 금지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학생O)

제한 중국 유학생의 견해를 종합하면, 여러 측면에서 한한령은 효과는 크지 않을 것

이므로 한한령이 없는 상태가 더 좋다는 의견이었다. 중국 방송 자체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서나 외래문화에 대한 접촉이라는 측면에서도 한한령은 많은 제약을 두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는 국민들의 정서도 고려해서 일시에 한류문화를 전면 금지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한한령을 중단하는 정책도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를 간섭하는 수단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한 20대의 유학생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류를 접촉하는 시간은 개인의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 한류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를 통해 한국에 대해 알게 되기도 하고 훗날 한국어를 배우는 동기가 되어 한국 유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그 후에 한류의 수용정도에 따라 반한류에 대한 의견의 차이도 나타난다. 한류에 관심이 없는 사람, 한한령의 영향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반면에 한류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국사회에 관심이 많은 사람 또는 나중에 한국에서 취직하려는 사람들은 한한령에 대해 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한한령을 반대하는 학생이든 찬성하는 학생이든 한한령의 결과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한령이 성공의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에는 아직도 한류 문화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사람들이 한류를 접촉하는 방식도 방송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다. 또한 중국은 나중에 방송국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합작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 밖에 한한령 때문에 일어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다. 중국 정부도 한한령이 가져올 이러한 소극적인 결과를 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편하게 외래문화를 접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더 좋아하고 기대한다. 그래서 제한 중국 유학생들의 생각에 따르면 이번의 한한령도 아마 2006년의 반한처럼 그렇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한류는 단순히 중국에 영상물과 음악을 전파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사회문화의 여러 영역에서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는 한한령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 속에 불편함을 많이 증가하고 한국과의 우호관계도 계속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20대 제한 중국 유학들이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5장 결론

중국 사람들이 한류에 처음 접촉하는 시기는 세대에 따라 차이점이 있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은 1990년대 한국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방송되기 시작하면서 처음 한류를 접촉하고 20대의 젊은 사람들은 2000년에 방송되었던 한국 드라마 <가을동화> 혹은 <대장금>을 통해 처음 한류를 알았다. 출발 시기는 좀 다르지만 모두 드라마를 통해 접촉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실 드라마 속에는 당시 사회의 현황, 문화, 역사 그리고 음악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드라마는 다른 나라에 문화를 전파할 때 제일 좋은 수단 중의 하나가 된다. 한국의 드라마는 바로 이런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쉽게 중국에 한류 열풍을 일으켰다.

그런데 한류열풍이 중국에 일어난 후 중국 사람들 사이에는 한류에 대한 인기만큼이나 한류에 대한 불만도 커지기 시작했다. 학계에서는 주로 한류의 내용이 좋은 가치관을 전파할 수 없다는 점과 한류 상품의 내용이 계속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인들 사이에 반한류의 정서가 생겼다. 중국 정부가 2006년에 반한을 시작한 것은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것이었다.

2006년 반한류가 발생했던 또 다른 이유를 보면 2006년 전에 중국의 사회 환경은 아직 문화우월주의가 아주 강한 사회였다. 정부는 외래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입하지만 국민들 사이에는 외래문화에 대한 배척 또는 저항의 심리가 있었다. 그런데 외래문화를 접촉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문화를 통해 자신의 문화를 어떻게 더 잘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우월주의 행위는 오늘날의 국제관계에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다(주정민, 2013).

2006년의 반한류는 이미 10년 전의 일이다. 현재 20대인 학생들은 그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2006년의 반한 이후 한국은 새로운 형식의 신한류를 중국에 다시 수출하고 한류열풍이 중국에 다시 일어나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2006년 이후 한류는 중국에서 다시 발전하였다. 드라마 외에도 한국의 노래, 예능 프로그램 또는 한국의 복장, 화장품, 음식, 게임, 여행, 유학 등이 중국에 열풍을 일으켰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 내 한류는 다른 나라의 문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발전해왔다. 특히 한국으로 여행과 유학을 떠나거나 취직을 하는 사람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추세는 10여 년 동안 유지되다가 2016년에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을 기점으로 다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016년 중국의 한한령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시작되었고 중국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근년에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한국과 협작을 하고 있어서 한한령이 시작되면서 양국은 모두 손실을 입었다. 또한 방송업의 발전도 한계가 생겼다. 중국의 방송문화는 아직까지 한국처럼 높은 수준이 아니어서 외래의 방송물을 참조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근년에 양국의 방송국이 협작하고 제작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아주 많다. 그런데 한한령 이후 한류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어서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한령의 영향은 중국회사의 광고를 촬영할 때도 생겨난다. 한국 연예인을 초청하고 이들을 광고모델로 계약했지만 한한령의 영향으로 이들을 광고모델로 사용할 수 없어 중국회사와 한국연예인들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

두 번의 반한의 차이점을 보면 주로 기원, 내용면에서 크게 다르다. 2006년의 반한류는 2016년과 비교하면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고 영향을 미치는 영역도 별로 없었다. 정치적인 문제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바로 해결되었다. 그런데 2016년의 한한령은 더 복잡하고 단기 내에 해결되고 있지 않다. 2016년 한한령이 중국에 아직 진행되고 있어서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2016년의 한한령은 2006년의 반한에 비해 기원이 정치문제에 있고 정부가 지시를 내리고 있으며 반한에 대한 사람들의 정서도 2006년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이번의 한한은 더 오랜 시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재한 유학생의 인식조사에서 중국의 젊은 사람들은 한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다. 한한령에 대한 19명의 재한 중국 유학생의 의견을 정리하였는데,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학생 7명,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학생 4명, 중립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학생 8명으로 나타났다. 반한류에 대해 긍정적 생각을 하는 학생도 많았지만, 반한류에 대해 중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제일 많았다. 그 이유로는 한한령이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드라마, 영화 등을 볼 수 있어서 반대나 찬성해야 할 이유를 크게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재한 중국 유학생들은 거의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한류를 접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의 생각은 한국의 드라마, 음악, 예능 프로그램, 일상생활용품 등에 대해 한류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중국이 이러한 것들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는 한한령에 대한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의 생각을 고찰하였다. 중국정부는 문화를 간접하는 수단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개혁개방 후에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긴 것은 바로 외래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이 계속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래문화를 접촉하면서 그 중에 자기의 문화보다 더 좋은 것을 배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한 문화가 국내에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면 나중에 중국은 흑시청나라 때처럼 문호를 봉쇄하고 타국과 내왕하지 않고 쇄국정책을 실시한 후의 결과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재한 중국유학생의 의견을 정리하며, 한한령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한한령의 결과에 대한 대부분의 학생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한한령은 이미 여러 가지의 영역에 영향을 미쳤는데 계속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사람의 생활 속에 있는 한류를 다 금지할 수 없고 많은 불편한 점이 생길 것이다.

한한령이 처음 시작될 때 단순히 방송 등 특정 문화상품의 교류가 약화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한한령의 영향이 여행 등 일반인들의 삶에도 미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한한령이 확산된 데는 양국의 언론이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혼란을 키운 것도 원인이 된다. 문화를 빌미로 한 양국의 정치적인 갈등이 결국은 아무 힘도 없는 일반인들의 삶에 큰 지장을 주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결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불편을 일으킨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더 좋겠고 다른 영역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날 국가 간 문화교류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된다. 전 세계에 어느 나라든지 문화교류 없이 자신의 나라를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중국은 국가가 문화교류에 개입하는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 한류를 중국에서 널리 유행할 때 중국과 한국이 다 한류를 통해서 이익을 받았다. 예를 들면 경제의 발전, 국가 이미지의 변화, 우호적인 문화교류 등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한한령을 팔표하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영향을 다 사라졌다. 남은 것은 좋지 않은 중, 한 관계, 불편한 점을 많은 사회 환경 등이다. 바로 정부는 문화에 대한 간섭이 너무 강하고 계속 사람들의 생각을 주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견해도 없고 반한의 행위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국가 간의 정치 문제는 정확한 해결 방법이 바로 정치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생활 속에 불편한 것도 감소할 수 있고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원하는 좋은 분위기가 있는 사회 환경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연구 과정 중에 겪어야 했던 한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 2006년의 반한에 관한 뉴스, 신문 또는 그것과 관련된 논문 자료가 중국 내에는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의 문헌만을 통해 그 때의 경우를 분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두 번째 한계는 논문을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2016년의 한한령이 2017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서 한한령의 전개와 결과를 완결성 있게 기술할 수 없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강내영(2008). 중국의 향한류 현상 연구: 드라마와 영화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 43집, 457-508.
- 고단단(高丹丹, 2004). <중국의 한류 현상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안재옥 팬클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권웅(2006). 동아시아를 휩쓰는 ‘한류’열풍에 대한 문화적 해독(하): 중국을 중심으로. <집중연구>, 23호 2006, 18-19.
- 김설화(2002). <중국의 ‘한류’ 현상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북경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자(2009). <중국내 반한류 현상에 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찬(2008). 동아시아 한류의 발전과 반한류. <민족연구>, 36권 2008, 89-110쪽.
- 김익기, 장원호(2013). 중국에서의 한류와 반한류- 문화접변에서 혼종화로. <지역사회학>, 제14권 제2호, 175-202.
- 다나카 히로시, 이타가키 류타(2007).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시작- 일본 지식인들의 ‘혐한류’비판>. 뷰스.
- 담홍월(2016). <중국내 한류 문화의 수용에 관한 연구 :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뢰위(賴威, 2006). <중국에서의 한류 영향 ‘한류가 경제, 문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선애(2011). 자문화 중심주의(Ethnocentrism)와 다문화교육자의 리더십. <종교교육학연구>, 37권, 175-191.
- 문홍호(2007). <대만문제와 양안관계>. 폴리테이아.
- 박광해(2004). 중국에서의 한류 열풍 및 그 전파원인. <한국학논집>, 제31호, 203-214.
- 박재복(2005). <한류, 글로벌시대의 문화경쟁력>. 삼성경제연구소.
- 석퇴(2014). <중국의 한류(韓流) 발전 추세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대현(2005). 韓國 엔터테인먼트 産業의 잠재력評價와 展望: 韓流理論의 모색. <관

- 광레저연구>, 제17호 제2호, 231-248.
- 쓰원(2014). <문화교류를 통해서 본 한중 관계발전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윤환, 이한우(2006). <동아시아의 한류>. 용인: 전예원.
- 유맹비(劉孟飛, 2017). <한류 형성배경과 중국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선선(2010). <중국 80후 세대의 한류 수용과 반한류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재웅(2007). <한국 드라마 시청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여승남(呂勝男, 2012). <한류 드라마 <대장금>의 성공 요인 분석- <대장금>이 중국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만(李曼, 2009). <중국내 ‘반한류’ 및 ‘반한감정’의형성에 대한 고찰-중국 언론의 보도와 네티즌 반응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혁(2004). 중국에서의 한류열풍에 대한 사회적 해석. <한국어언문화학>, 제1권 제2호, 163-173.
- 이병환(2005). 중국대학생의 한류인식시대와 그 의미. <중등교육연구>, 53(3), 154.
- 이정표(2003). <地方政府의 國際交流政策分析>.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남(張楠, 2016). <한중문화교류-수교 이후의 현황과 전망>.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선(2012). <한류문화의 실태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주영걸(2005).<중, 한 문화를 확대를 위한 한류 문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정민(2013). 한류 콘텐츠에 대한 ‘반한류’ 현상의 원인과 대응: 중국, 일본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제7권 제2호(제14집), 137-160.
- 중앙일보(2016. 11. 21). 중국 전면 한한령. 전지현 드라마, 송중기 광고도 막았다.
- 제성호(2003).東北亞 經濟共同體 건설과 法·制度的 實踐課題. <저스티스>, 통권72호, 257-274.
- 치아오 춘옌(喬春嫣, 2011). <중국의 한류에 대한 태도 및 전망에 관한 이론적 연구-드라마의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미진(2002). <한, 중 문화 교류의 현황과 과제 : “한류”형상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강우(2001). <한중신문의 보도양상 비교분석 연구: 人民日報와 대한매일의 1면 보도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은경, 장우성, 이지훈(2007). ‘반한류’구성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중국대학생을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제 16 권 제 3 호, 217-235.
- 화개경(2011). <한류의 경제적인 효과에 관한연구-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정홍(1998).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정책: 경상북도사례>.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중국어 자료

- 网易新聞(2016. 11. 17). 限韓令生效了? 9月以后韓星演出均未獲批審.
- 网易新聞(2016. 11. 19). 限韓令疑升級, 韓星代言廣告不得出現.

온라인 자료

- 류종훈(2016. 8. 13). 한한령(限韓令)’이라는 이름의 포비아. <PD저널>.
URL: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9081>
- 심윤희(2016. 8. 8). ‘한류’사면초가. <MK뉴스>.
URL: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6&no=564951>
- 百度百科(2017. 4. 5) “限韓令”.
URL: <http://baike.baidu.com/item/%E9%99%90%E9%9F%A%E4%BB%A4/19875423?fr=aladdin>
- 藍羽出品(2016. 9. 15). 限韓令下, 爲什么湖南衛視還敢公然請韓星? <搜狐新聞>.
URL: <http://mt.sohu.com/20160915/n468479467.shtml>
- 駱雅心(2016. 8. 6). 爆“限韓令”名單, 42名藝人, 52部劇受影響. <网娛娛樂>,
URL: <http://ent.163.com/16/0806/08/BTP7NNDL00031GVS.html>

肉圓(2014. 8. 13). 韓星金秀賢中國掃 35 个广告. <新浪新聞>.
URL: <http://ent.sina.com.cn/s/j/k/2014-08-13/09144190889.shtml>

王可蓉(2017. 2. 15). 傳說中的“限韓令”讓國內綜藝節目經歷了什么? <觀察者>.
URL: http://www.guancha.cn/Celebrity/2017_02_15_394470.shtml

縣城(2016. 9. 20). 爸爸去哪第四季黃致列加盟录制.网友表示：說好的限韓令呢? <國際在線>.
URL: http://xyjj.china.com.cn/2016-09/20/content_9043024.htm

新浪微博网友(2016. 8. 6). 限台令之后广电又出限韓令. <新浪网>.
URL: <http://weibo.com/ttarticle/p/show?id=2309404005448117302463>

熊如夢(2016. 12. 7). 韓媒：韓國音樂組合在上海演出獲批. 限韓令或暫放寬. <鳳凰資訊>.
URL: http://news.ifeng.com/a/20161207/50376937_0.shtml?_zbs_baidu_bk

原子.(2017. 2. 27). Runningman下架, 限韓令是真的來了. <參考消息>.
URL: <http://www.cankaoxiaoxi.com/ent/hot/20170227/1722396.shtml>

中非企業家投資協會(2016. 8. 13). “限韓令”繼續追蹤：韓國娛樂圈或將有 1/3 的人失業. <搜狐>.
URL: <http://mt.sohu.com/20160813/n464035948.shtml>